

親政前後 高宗의 對外觀과 對日政策

安 鍾 哲

머 리 말

一. 高宗親政前의 對日關係와 對外 認識

1. 大院君政權의 ‘鎖國’과 對外認識
2. 朝日關係의 ‘停頓’과 高宗의 對
外關心 增大

二. 高宗親政後 高宗의 對日政策變 化

1. 高宗의 對外認識變化와 親政宣
布
2. 親政直後 高宗의 對日政策變化
맺 음 말

머 리 말

19세기의 조선은 소위 ‘세도정치’기로서 세도가문들이 왕정체제를 ‘사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한 체제로 만들어 버린 시기라고 이해된다. 19세기 후반 大院君 정권의 ‘반동’ 적 시기를 거친 조선정부는 고종이 들어서면서 다시금 무능한 왕 밑에서 척족 세력이 정치를 농단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 이 시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었다.⁽¹⁾ 이에 따라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합방까지는 당연히 망해야 할 시기의

(1) 많은 연구들이 이 시기 정치주체의 세밀한 분석보다는 ‘민비척족세력’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日人 학자들의 저술을 통해 해방 후에도 자리 잡은 인식이다.

久保天隨, 1905 《朝鮮史》東京 博文館
역사지리학회, 1910 《韓國의 併合と國史》

‘前史’로 상정되었다. 이 시기를 이해하는 기본틀은 식민지 담론 즉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당시 조선정부는 무능과 무지로 가득차 있었다는 것이다.⁽²⁾ 그리하여 고종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 고종이 주도한 외교사라는 것은 더욱 빈약한 것으로 위치 지워질 수밖에 없다. 조선정부나 고종의 有無能과 별개로 이러한 논의들이 학문적 고찰에 장애가 되는 ‘담론’을 만들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최근 들어 조선후기 특히 개항기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최근 제기되는 일제시기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일제시기 조선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경험이 해방 후 한국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³⁾ 즉 정치적인 논의에 더 이상 일제시기 자본주의 발전의 측면이 묻혀있

釋尾春苒, 1921 《朝鮮併合史》朝鮮及滿洲社
日笠護, 1930 《日鮮關係の史的考察と其の研究》東京 四海書房
小田省吾, 1931 《朝鮮小史》東京 魯療記念財團(增訂. 1938 京城 大阪屋號書店)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朝鮮總督府中樞院

김성철, 1948 《고쳐 쓴 조선역사》乙酉文化社

손진태, 1949 《국사대요》乙酉文化社

李瑄根, 1961 《韓國史 最近世篇》乙酉文化社

(2) 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은 담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을 참조.

李光來 옮김, 1987 《말과 사물》民音社/ Michel Foucault, 1966 《Les mots et les choses》Paris: Gallimard

박홍규 옮김, 1991 《오리엔탈리즘》教保文庫/ Edward Said, 1985 《Orientalism》London: Penguin Books

김성곤·정정호 옮김, 1995 《문화와 제국주의》도서출판窓/ Edward Said, 1993 《Culture and imperialism》New York: Alfred A. Knopf

Stefan Tanaka, 1993 《Japan's Orient》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姜尙中 著, 이경덕·임성모 옮김, 1997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3) 대표적으로 安秉直, 中村哲 공저, 1993 《근대조선 공업화의 연구》일조각

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⁴⁾

정치사에 대한 관심은 정치주체에 대한 관심과도 직결되는 것이기에 정치주체로서의 고종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평가가 대두되었다. 고종 등장시 그의 역할에 대한 연구⁽⁵⁾와 조선정부의 자주적 개화 노력에 대한 평가⁽⁶⁾와 한일간의 조약체결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고종의 저항⁽⁷⁾ 등이 그것이다. 개항이후의 조선정부의 자주적 외교활동의 전말은 최근 에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⁸⁾ 밀사외교활동의 측면에서 최근 고종의 대외 인식에 대한 연구⁽⁹⁾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들이 주로 조미수호조약(1882년)이후부터 러일전쟁에 이르는 시기를 다루고 있다.

개항 이전의 조선의 대외문제를 다룬 연구 중 대표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제임스 팔레는 개항기까지 고종의 주체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그

(4) 이러한 주장은 함방전 개항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으며 정치가 경제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제국주의 시대'의 기본전제를 무시하고 있다.

(5) 金永洙, 1990 <한말 고종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일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논문

安外順, 1996 <대원군 집정기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전자는 친정시 고종의 주체성을 후자는 대외위기인식과 고종 친정 결심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6) 李泰鎮, 1996 <奎章閣 中國本圖書와 集玉齋圖書>《민족문화논총》 1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李泰鎮, 1997 <서양 근대 정치제도 수용의 역사적 성찰-개항에서 광무 개혁까지>《진단학보》 84

李泰鎮, 1995 <18~19세기 서울의 근대도시발달 양상>《서울학 연구》 제 4호

(7) 李泰鎮 편, 1995 《일제의 대한제국강점》까지

(8) 김원모, 1984 <박정양의 대미자주외교와 상주공사관개설>《藍史 정재각 박사 회회기념 동양학 논총》

김경태, 1993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창비신서 131

(9) 강상규, 1995 <고종의 대외관에 관한 연구> 서울대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의 의지로 조선이 대일 개방정책으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⁰⁾ 그러나 고종과 조선정부의 대외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고종의 대외관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도 아니다. 개항직전의 조선정부의 대외관 특히 고종의 대외관 성립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일본과 조약을 맺기 직전의 고종의 대외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당시 조선 정부의 '입장'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대외관계에 대한 바른 인식 정립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항직전 즉 고종 즉위(1864년)부터 강화도 조약(1876년)에 이르는 시기에 걸친 고종으로 대표되는 조선정부의 대외인식을 살피려고 한다. 세 시기로 구분해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번째는 고종 즉위(1864)부터 신미양요가 발생하는 1871년까지이다. 두번째는 신미양요 후 大院君 정책에 대해 조금식 반성이 있게 되면서 고종의 친정(1873년 11월)까지 이어지는 시기이다. 세 번째는 고종 친정 후 강화도 조약직전까지인데 주로 對日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두 차례(1866, 1871)에 걸친 배외적인 국지전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항이라는 획기적인 정책변환으로 조선정부가 돌아서게 되었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유럽 근대법적 질서가 동아시아에 수용되기 시작할 때 조선정부가 일본을 어떻게 상대하려고 했던가를 고찰하는 것은 이후 유럽 국제법적 질서가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이해되면서 갈등을 일으켰는지 살피는 것의 기초작업이 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의 '개항'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외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이다. 이 논문에

(10) James B. Palais, 1975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서 주로 다룬 것은 《高宗純宗實錄》，《日省錄》，《承政院日記》，《日本外交文書》，미국·영국 등의 《외교문서》등의 공식자료들이다.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공식자료를 통해 대외정책을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외인식까지 추론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날짜는 음력으로 표기했다.

一. 高宗親政前의 對日關係와 對外認識

1. 大院君 政權의 ‘鎖國’과 對外認識

전통적으로 조선정부의 대외인식은 부산의 왜관과 통신사를 통한 對日本 정보와 중국행 사신들을 통한 對淸정보, 그리고 일본과 淸의 書契와 咨文 등의 내용들을 통해 내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해서는 1811년의 통신사 이후 대규모 관리가 직접 일본에 들어간 경우는 없었다.⁽¹¹⁾ 중국과의 교류는 조선초기의 경우, 冬至·正朝·聖節·千秋의 四行이 일반적이었고, 청이 등장한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가지 기능이 冬至使로 통합되었다. 冬至使行은 매년 파견되었다.⁽¹²⁾

이 논문이 다루는 시기인 고종 즉위부터 강화도 조약직전까지 조선정부가 청에 사신을 파견한 횟수는 〈표 1〉에서 보듯이 약 20회 가량이 다. 청에서 조선에 勅使를 보낸 것은 네 차례였다.(〈표 2〉 참조) 청에

(11) 조선 통신사에 대해서는 손승철, 1987 《近世韓日關係史研究》강원대 출판부 8장 〈조선통신사와 근세 한일관계〉 참조

(12) 全海宗, 1970 《韓中關係史 研究》—潮閣 〈清代 韓中朝貢關係考〉참조

〈표 1〉 1864~1876년 遣清使行的 내용과 명단

出發年月	回還年月	使行的名稱(특징)	正使	副使	書狀官	首譯
63.10	64. 3	進賀謝恩兼冬至行一定例使行	趙然昌	閔泳緯	尹顯岐	李閔益
64. 1	64. 5	告訃清益兼承襲奏請行-哲宗昇遐와 高宗即位	李景在	林肯洙	洪必謨	李尙迪
64. 9	65. 2	謝恩行-清使來朝의 答行	徐衡淳	趙熙哲	鄭顯德	朴適性
64.10	65. 4	謝恩兼冬至行一定例使行, 書狀官·首譯治罪	俞章煥	尹正求	張錫駿	卞光韻
65.10	66. 3	謝恩兼冬至行一定例使行	李興敏	李鐘淳	金昌熙	李直教
66. 4	66. 8	進賀謝恩兼奏請行-王妃册封奏請行	柳厚祚	徐堂輔	洪淳學	玄 鐸
66.10	67. 3	謝恩兼冬至行一定例使行. 병인양요 청에 移咨	李豐翼	李世器	嚴世永	卞光韻
67.10	68. 3	冬至兼謝恩行一定例使行	金益文	趙性教	洪大種	金景遂
68.11	69. 3	冬至兼謝恩行一定例使行	金有淵	南廷順	趙秉鎬	韓文奎
69.10	70. 3	冬至兼謝恩行一定例使行	李承輔	趙寧夏	趙定熙	韓文奎
70.윤10	71. 3	冬至兼謝恩行一定例使行	姜 滄	徐相段	權膺善	玄 鐸
71.10	72. 3	冬至兼謝恩行一定例使行	閔致庠	李建弼	朴鳳彬	李應三
72. 7	72.12	進賀兼謝恩行-同治帝結婚祝賀	朴桂壽	成彝鎬	姜文馨	吳慶錫
72.11	73. 4	冬至兼謝恩行一定例使行	金壽鉉	南廷益	閔泳穆	尹夏楨
73. 3	73. 8	進賀兼謝恩行-皇帝親政 및 皇太后稱慶	李根弼	韓敬源	趙宇熙	?
73.10	74. 3	謝恩兼冬至行一定例使行	鄭健朝	洪遠植	李鎬翼	吳慶錫
74.10	75. 4	冬至兼謝恩行一定例使行	李會正	沈履澤	李建昌	李容肅
75. 4	75.10	陳慰兼進香行-同治帝 薨逝	姜蘭馨	洪統周	姜 贊	韓文奎
75. 5	75.11	進賀兼謝恩行-光緒帝 即位	李昇應	李淳翼	沈東獻	李泰秀
75. 7	75.12	奏請行-世子册封	李裕元	金始淵	朴周陽	李尙健
75. 9	76. 3	進慰進香兼謝恩行-皇后 사망	李秉文	趙寅熙	鄭元和	?
75.10	76. 3	進賀兼冬至行一定例使行	南廷順	李寅命	尹致聃	?
76.윤5	76. 9	進賀行-清使來朝의 答行	韓敦源	林翰洙	閔種默	韓文奎
76.10	77. 4	謝恩兼冬至行一定例使行	沈承澤	李容學	尹升求	韓文奎

비고 : 1) 안외순, 1996 〈大院君 집정기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 논문 p. 199 표에 1874~1876년분을 첨가·재구성한 것이다.

2) 《日省錄》, 《同文彙考》에서 작성.

〈표 2〉 來朝 淸使 名單

來朝年月	淸使	목적
고종 1년(1864) 9월	上使 戶部侍郎 臯保 副使 漢軍正白旗副都統 公文謙	哲宗昇遐에 대한 弔意표 시와 謚號제수 및 고종즉 위에 대한 誥命
고종 3년(1866) 9월	上使 理藩院右侍郎 魁齡 副使 委散秩 布元	왕비책봉
고종 12년(1875) 4월		同治帝 崩逝과 光緒帝 卽 位 勅諭
고종 13년(1876) 1월		王世子책봉

비고 : 《日省錄》《高宗時代史》에서 작성

서 온 칙사들의 방문은 대부분 형식적인 것⁽¹³⁾이었기에 조선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왜관을 통한 일본측 정보과악과 함께 見淸使臣들이 조선정부의 주요 대외 정보원이었다.

大院君 집권 이전 해안에 자주 나타난 ‘이양선’과 1860년의 英佛 연 합함대의 북경점령에 충격을 받은 조선 정부는 서양국가에 대해 ‘통상 거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1864~71년의 조선정부의 대외인식 과 정책의 중심인 大院君도 이 정책을 계승하였다.

大院君정권은 한편으로는 서양과의 교섭을 고려하기도 했었다. 1860년대 초반 러시아는 북경조약 등을 통한 동아시아지역의 영토 확대로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조선에 위협이 되었다. 이 시기에 大院君이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以夷制夷’ 방법, 즉 프랑스·영국과 조약체결을 통해 러시아 세력을 막아보려고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⁴⁾ 大

(13) 淸使가 慕華館에 머무는 기간이 3~4일에 불과했다. 예를 들면 1864년(고종1년) 9월 9일에 온 칙사는 12일에 돌아갔다. 《日省錄》卷 12, 해당 월일 참조.

院君은 비밀리에 지방관을 통해 러시아측과 越境民들의 송환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大院君이 비밀리에 러시아와 교섭한 것은 당시 위정척사의 분위기와 관계가 있고 청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¹⁵⁾ 이것들이 일시적인 교섭임을 고려한다면 주된 대외관계상의 문제는 청과 일본이었다.

1850년대 후반, 청·영전쟁과 태평천국 난을 통해 조선에 청의 위기 의식이 전달되었다. 1856년 애로우(Arrow)호 사건을 통해 ‘天津條約’을 체결했던 서양세력은 1860년에 조약의 비준서 교환문제로 다시 중국을 공격했다. 그리하여 咸豐帝가 熱河로 피난하여 북경이 비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서울장안의 民心도 동요했고 다수의 낙향자가 있었다.⁽¹⁶⁾ 1861년 7월에 熱河에 피신갔던 咸豐帝가 사망하고 同治帝가 5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다. 이후 공친왕과 서태후 등에 의해 청의 정세가 안정되어 간다는 보고가 있었다.⁽¹⁷⁾ 조선 정부는 청의 정치정세를 참고로 삼는 것이 많았다.⁽¹⁸⁾

1850년대와 60년대에 조선정부는 이양선이 등장한 것을 청과 일본에 각각 통고했다. 대체로 조선정부는 事大와 아울러 交隣이라는 정책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었다.⁽¹⁹⁾

(14) 샤를르 달레 原著, 安應烈의 역, 1980 《韓國天主教會史》 한국교회사연구소 p. 360, 안외순, 위의 논문 pp. 193~197

(15) 연갑수, 1997 〈대원군집권기 대외인식과 국방정책〉 《19세기 한국사회와 문화의 변동》 한국문화연구소 제 9회 학술토론회 pp. 115~118

(16) 閔斗基, 1986, 〈19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대외위기의식〉 《동방학지》 52 (연세대 국학연구소)와 河政植, 1995 〈태평천국과 1850~60년대 초 조선왕조의 위기의식〉 《동방학지》 87 (연세대 국학연구소)

(17) 《日省錄》卷 6, 고종 1년(1864) 3월 9일 正使 趙然昌의 보고 참조

(18) 청의 섭정체제가 대원군의 섭정을 정당화해주는 논리가 될 수 있었기에 조선정부의 청에 대한 관심은 컸다고 할 수 있다.

(19) 이 시기의 정책을 ‘쇄국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본이 조선의 문호를

일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인양요 후였다. 1867년 초반에 청의 禮部가咨문을 보내 왔는데 그 내용은 南北洋通商大臣과 稅務司들이 신문에서 채록한 결과, 일본이 프랑스와 함께 조선을 침공할 지 모른다는 것이었다.⁽²⁰⁾ 이는 1867년 일본인 八戶順叔이 청에서 신문에 발표한 ‘朝鮮征伐說’이었다. 내용은, 역사적으로 조선은 일본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쳐왔는데 최근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²¹⁾ 이것은 일본의 명치유신 전 막부의 마지막 개혁(소위 ‘慶應改革’)의 군사적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었다.⁽²²⁾

이는 청측에서도 믿지 않았던 정보였기에 조선정부는 이 기사를 의심하면서도 일본을 경계했다. 조선은 일본을 엄히 꾸짖는 동시에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書契를 보내었다.⁽²³⁾

일본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조선을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지만 이

‘열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도 각주 1)에서 언급된 책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용어에 대한 비판은 金容九, 1997 《(전정관)세계외교사》 서울대 출판부 p. 238 참조

(20) 《日省錄》卷 6, 고종 4년(1867) 3월 30일 「... 又云日本現有火輪軍艦八十餘艘 有興往討朝鮮之志 又云開春和暎之時 不但法國進兵 日本亦欲進兵...」

權錫奉, 1986 《清末 對朝鮮政策史研究》 일조각 제 1. 2장 참조

(21) 《籌辦夷務始末》卷之48 國風出版社 동치 6년(1867) p. 1160 「... 而第惟新聞諸條內 事係日本者 有曰新羅王之子來朝 有曰新羅王降 高麗百濟亦來降者 東國紀載 原無是事 根據失實 自歸虛妄 有曰文祿元年遣兵伐朝鮮云者 即指敵邦照敬王壬辰被兵時事 而諱敗飾勝 變幻事實 有曰朝鮮王每五年 必至江戶拜謁大君 有曰往討朝鮮 因朝鮮五年一朝貢 至今負固不服 此例久廢故也...」

(22) 朴榮濬, 1994 《明治維新 前後의 日本軍事史(1853~1877)》《軍史》 28, 국방군사연구소 참조

(23) 《日省錄》卷 53, 고종 4년(1867) 3월 30일 참조. 「...有日本國客人八戶順叔言日本江戶政府督理船務將軍中濱萬次郎月前持至上海製造火輪船八十艘近日已啓行回國國中共有二百六十諸侯至江戶會同議政現有興師往討朝鮮之志...右項事實轉達東武(將軍: 필자) 明賜覆音」

는 믿을 것이 못된다는 내용의 書契를 조선에 보냈다.⁽²⁴⁾ 일단 조선 측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으나 일본을 의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정부가 병인양요 후 일본에 그 사실을 알리는 交隣書契를 보낸 것과는 대조적이다.⁽²⁵⁾ 이 문제는 나중에 강화도 조약 체결시, 일본측이 운양호 포격에 대해 사죄를 요구할 때, 조선 측 전권대신 申櫛이 일본측에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다.⁽²⁶⁾

이후 일본은 제너럴셔먼호(The General Sherman) 사건과 丙寅洋擾의 소식을 접한 후 1867년(고종 4년) 사절을 파견해 양국관계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막부의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의 생각은 고위 외교 사절단을 서울에 파견하여 조선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미국, 프랑스 등과 강화하도록 설득한 후, 이것이 성공하면 미국과 프랑스로 하여금 조선과 結交하도록 종용한다는 것이었다.⁽²⁷⁾ 미국은 이에 찬성하였고 프랑스는 반대했다. 조선 정부는 국내사정과 선례가 없음을 이유로 막부사절단의 來訪을 거절하였다. 조선정부의 공식 입장은 9월에 對馬島主를 통해 막부에 통고되었다. 그러나 막부는 사절단을 보내었는데 1867년 12월에 내전으로 도중에 중지되었다.⁽²⁸⁾

일본이 1868년 ‘明治維新’을 단행한 후 양국간에 書契문제가 대두되었다.⁽²⁹⁾ 이 시기 문제가 되었던 것은 東來府를 거쳐 조선에 전달된 書

(24) 《高宗實錄》卷4, 고종 4년(1867) 10월 1일

(25) 《同文彙考》四, pp. 3900~3901 〈禮曹參議以畿沿各邑洋船情形與島主書—丙寅年 10月〉

(26) 《日省錄》卷175, 고종 13년(1876) 1월 3일 申櫛과 黑田清隆의 담판 참조

(27) 《大日本外交文書》제1권(1867년) 문서번호 20, 10월 25일 〈朝鮮ト佛蘭西トノ紛議調停ノ爲我國ヨリ使節派遣ニ關シ意見上申ノ件〉등 관련문서. pp. 67~79

(28) 田保橋 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朝鮮總督府中樞院 上, pp. 107~121. 柳永益 1992, 〈19세기 말 朝·美관계의 전개와 일본의 역할〉《韓國近現代史論》일조각 참조

契에 사용된 용어와 관계된 것이다. 그것은 皇室·奉勅 등 天子國 용어 사용, 左近衛少將·平朝臣 등 일본내에서 부르는 관직 명칭을 그대로 쓴 것, 조선의 관직인 禮曹參判의 뒤에 공을 붙인 것, 서계에 사용한 新印 등이다.⁽³⁰⁾

조선정부가 일본의 서계를 거부한 이유는, 對馬島에서 조선정부에 보낸 명치유신 통고의 先問書契를 조선정부가 거부할 때 일본측에서 조사해둔 자료에서 엿볼 수 있다. 첫째는 대마도가 왜 앞장서서 일본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냐는 것과 둘째는 친황에게 대권이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大臣상당의 관리를 임명해서 舊交를 계속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셋째가 주목을 끄는 것으로 일본이 淸에서 쓰는 문자를 씀으로써 조선을 臣隸와 같은 존재로 취급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었다.⁽³¹⁾

이미 1850~60년대에 청이 서양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조선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의 서양화를 우려했다.⁽³²⁾

조선정부가, 청과의 사대관계와 일본과의 교린외교, 그리고 대마도에 대한 羈縻之策등의 질서⁽³³⁾를 흐트러뜨리는 일본의 주장을 충분한 설명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리였다. 조선정부가 무지했기 때문에 일본을 거부했던 것은 아니다.

(29) 자세한 과정은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 研究》朝鮮總督府中樞院 3~5장과 김의환, 1974 《朝鮮近代 對日關係史研究》경인문화사 제 1편 3장 등 참조.

(30) 《日本外交文書》제 3권(1870년) 문서번호 615, 11월 일 缺 〈大政一新通告ノ先問書契ノ文辭慣例ユ反シ政府ヘ傳達シ得サル事由辨明ノ件〉

(31) 《日本外交文書》제 2권(1869년) 문서번호 320, 6월 일 缺 〈宗義達(嚴原藩知事)內 大島友之允ヨリ外國官宛〉중 pp. 237~239

(32) 閔斗基, 1986, 河政植, 1995 앞의 논문들 참조

(33) 조선후기 대일교섭의 특징은 다음 논문을 참조. 孫承喆, 1994 〈朝鮮後期 脫中華의 交隣體制〉《講座 韓日關係史》玄音社

이 시기 조선정부의 對日關係는 주로 大院君의 핵심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동래부의 관리들은 大院君과 연결되어서 정책을 수행했고 고종 친정 후 현직에서 물러났다. 대표적으로 大院君 집정중 東來府使⁽³⁴⁾로 발탁된 인물인 姜滌⁽³⁵⁾와 鄭顯德⁽³⁶⁾ 등을 들 수 있다.

大院君측의 동래부 장악⁽³⁷⁾ 때문에 일본의 명치유신(1868년) 이후 1871년에 이르는 기간의 朝日交涉에 대한 조선측 입장에 대한 공식기록은 빈약하다.⁽³⁸⁾

大院君시기의 대외관계의 특징은 청과의 전통적 관계의 유지, 프랑스와 미국의 도발, 일본의 명치유신 후 倭洋一體論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大院君 시기의 경직된 대외 위기의식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일반민들 특히 관료층의 배외감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것이 강화도 조약 당시 고종이 조약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국왕 고종도 이러한 정책을 반대하지 않았음을 신미양요 직전인 召對에서 大院君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³⁹⁾

(34) 동래부사는 국제관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35) 1870년 윤 1월 冬至兼謝恩使行의 正使로 청에 다녀왔다. 대원군 집권 초반에 동래부사를 역임했고(〈표 5〉 참조) 1872년에 병조판서와 좌의정을 지냈다.

(36) 1864년 9월에 謝恩行에 書狀官으로 다녀온 사람으로 귀국 후 동래부사에 임명되었다.(〈표 5〉 참조)

(37) 대원군은 각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延甲洙, 1991 〈大院君執政의 性格과 權力構造의 變化〉《한국사론》서울대 국사학과 pp. 231~232

(38) 田保橋 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朝鮮總督府中樞院 上 pp. 181~182

(39) 《高宗實錄》卷 8, 고종 8년(1871) 4월 25일 「...敎曰此夷之所欲和者未知何事而以若數千年禮義之邦豈可與犬羊相和乎雖幾年相持必痛絕乃已若有以和字爲言者當施賣國之律矣...」

이 시기 국왕 고종의 대외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고종의 대외관에 대한 검토는 1873년의 친정 선포 후의 정책에 대한 이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1864~1871년간의 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冬至行 사신이었다. 1864년과 1865년간에는 수렴청정을 하던 대왕대비가 그들을 접견하고 고종은 곁에 있었다. 대왕대비는 중국의 반란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다. 1850년대 태평천국난으로 청정부가 위기에 빠진 경험이 있었고 그것이 조선에도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⁴⁰⁾ 이는 조선내부의 혼란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조선정부는 청과 마찬가지로 수취체제의 악화로 농민반란에 자주 접하고 있었다. 1861년 진주민란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국왕과 대비는 중국황제의 학문에 대해서도 많이 물었다. 고종 2년(1865) 2월 冬至正使⁽⁴¹⁾ 徐衡淳과의 대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高宗 : 황제가 강학에 힘쓰고 있다고 하니 믿을 만한가?

徐衡淳 : 날마다 접하는 신료들이 열심히 하며 게으르지 않습니다.

大王大妃殿 : 황제가 三百行을 읽는다고 하는데 어떤가?

徐衡淳 : 그렇습니다.

大王大妃殿 : 반드시 보도(輔導)하는 신하가 잘 나아가 열심히 하는 까닭에 이와 같이 학문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徐衡淳 : 들건대, 강학관이 새벽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온다고 하며 일념으로

(40) 金誠贊, 1989 〈太平天國과 捻軍〉《講座中國史》V 참조.

(41) 正, 副使가 공식적인 외교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書狀官은 비공식적인 외교활동(探聞, 閭巷의 여론 조사 등)을 통해 別單을 首譯과 함께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通文館志》1945, 朝鮮總督府 卷之三 赴京使行的 해당 품계와 역할참조. 고종도 이들 사신들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다음 기사들이 보여준다. 《日省錄》卷 157, 고종 11년(1874) 10월 28일, 권 167, 고종 12년(1875) 5월 25일, 卷 185, 고종 13년(1876) 10월 27일

보도(輔導)해서 황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에 힘쓰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돌아와 시절이 평안하다고 합니다.⁽⁴²⁾

사행사들은 同治帝 주변의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해 보고하였는데 이는 조선조정이 국왕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을 의식한 보고라고 할 수 있다.

‘洋夷’에 대한 질문은 1840~50년대에도 이미 있었던 것인데⁽⁴³⁾ 이때에도 반복되었다. 사신들은 서양인들이 북경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지만 곧 쇠퇴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⁴⁴⁾ 이는 태평천국운동과 두 차례의 淸英전쟁시에 청에 갔던 사신들과 공통적인 견해이다.

‘洋夷’에 대한 고종의 생각은 1866년(고종 3년)이후부터 조금씩 나타난다. 대왕대비의 垂簾聽政이 그치고 국왕의 형식적인 친정이 시작되면서 고종은 회견사신들을 직접 대면했다. 황제 근황, 關內·外의 도적과 洋夷 문제, 조선사신들이 지났던 길 근처의 농사의 풍흉에 대한 보고는 대부분 낙관적인 것으로 채워졌다.⁽⁴⁵⁾ 聞見別單도 매우 소략하고 의례적이며 내용이 긍정적이었다. 이는 국왕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의례

(42) 《日省錄》卷 21, 고종 2년(1865) 2월 28일 「...予曰皇帝勤於講學云信否 徐衡淳曰日接臣僚孜孜靡懈矣 大王大妃殿曰皇上讀三百行云然否 衡淳曰然矣 大王大妃殿曰必也輔導之臣善爲陣勉故如是勤學矣 衡淳曰聞講官晨入暮退一念輔導而皇上亦終始典學故人心斬禱時象晏如矣...」

(43) 민두기, 하정식 앞의 논문 참조

(44) 《日省錄》卷 21, 고종 2년(1865) 2월 28일 正使 徐衡淳과 조대비와 대화. 卷23, 고종 2년(1865) 4월 8일 正使 兪章煥과 조대비와의 대화. 卷 44, 고종 3년(1866) 8월 23일 高宗과 正使 柳厚祚와의 대화 등 참조.

(45) 《日省錄》卷 44, 고종 3년(1866) 8월 23일의 별단내용, 卷 54, 고종 4년(1867) 4월 2일 문답. 卷 68, 고종 5년(1868) 4월 2일 문답. 卷 83, 고종 6년(1869) 3월 26일 正使 金有淵의 보고. 이러한 인식은 《日省錄》卷 96, 고종 7년(1870) 4월 2일, 卷 108, 고종 8년(1871) 3월 22일, 卷 121, 고종 9년(1872) 4월 4일 등 1872년 정도까지 계속되고 있다.

적인 것에 그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⁶⁾

1866년(고종 3년) 8월에 돌아온 進賀兼奏請行 正使 柳厚祚와의 접견에서 고종은 청 내부사정과 서양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먼저 고종이 柳厚祚에게 그간 평양에서 제너럴 서먼호의 소각 사건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청과 洋夷와의 관계를 물었다. 이는 당시 이양선 출몰과 통상 요구, 미국 측에 의한 일련의 도발(제너럴 서먼호 사건)에 대한 조선정부의 위기의식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⁴⁷⁾ 고종은 서양인들의 청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표명했다. 그 일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高宗 : 중원(中原)의 서양인들의 습관은 근래에 어떤가?

柳厚祚 : 서양인들은 중원의 예의와 제도(節制)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에 있지 않던 일을 하는 것이 심히 많다고 합니다.

高宗 : 서양인들은 과연 大國(필자 : 淸)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柳厚祚 : 조선관(朝鮮館)과 성과의 거리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지척(咫尺)이기에 보통 서양인들이 그 처자를 이끌고 어렵지 않게 성을 오르고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중국의 법에 성에 오르면 그 죄를 갚을 수 없는데도 서양인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그 무리의 방자함은 거리낌이 없음을 이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洋夷가 비록 교활(狡醜)하나 거짓된 것이 바른 것을 이길 수 없으니 어찌 능히 오래 가겠습니까?⁽⁴⁸⁾

사신은 서양세력이 북경거리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보

(46) 보고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1870년 4월의 회환사신문답에서 고종이 청의 농사 형편을 물은데 대해 正使 李承輔의 보고와 書狀官 趙定熙의 건문 별단은 關內지역이 각각 풍년과 흉년이라고 보고했다.

(47) 《龍湖閑錄》四 1980, 國史編纂委員會 1866년(고종 3년) 청에 보낸 「咨文」 pp. 25~30

(48) 《日省錄》卷 44, 고종 3년(1866) 8월 23일 「...予曰中原洋人之習近來何如 厚祚曰洋人不受中原節制行其前所末有之事甚多云矣 予曰洋人果不畏大國乎 厚祚曰朝鮮館距城相望咫尺之地而常見洋夷率其妻子無難登城往來蓋中國之法有登城人則罪不容貸而洋夷之任意出入莫之禁止厥輩之恣橫無忌推此可知矣又奏曰洋夷雖狡醜邪不勝正豈能久乎...」

고했지만 그 동향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고종도 이 정도 수준에서 정보에 접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67년부터 고종이 직접 聞見錄을 읽었고⁽⁴⁹⁾ 외국지리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⁵⁰⁾ 그러나 국왕의 서양에 대한 관심은 이후로 1871년 3월 姜滌와의 대화까지는 특별한 것이 거의 없다.

한편 청에 대한 관심과 조선내정의 관련성은 高宗 6年(1869) 4월 5일에 제출된 首譯 韓文奎의 見聞別單의 내용에서도 읽을 수 있다. 재정 문제에 대해 흥미 있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當十錢 私造와 화폐가치 하락의 폐단이었다.⁽⁵¹⁾ 이는 고종 초반의 淸錢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다. 친정이 선포된 바로 직후인 1874년 1월 6일, 고종이 淸錢의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보면, 淸錢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는 결코 흘려 듣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⁵²⁾

그러나 이시기 청과 조선은 서양문제보다 반란군의 처리와 같은 내정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서양의 '충격'에 대한 '반응'보다 '내치'가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1872년 이후 고종은 '洋夷'에 대해 적극

(49) 《日省錄》卷 54, 고종 4년(1867) 4월 2일 「...予曰聞見錄雖已見之餘外更無他事乎...」

(50) 《日省錄》卷 68, 고종 5년(1868) 4월 2일 「...予曰無事往還乎 豐翼曰王靈攸(暨)無故往還矣 予曰聞見錄雖已見之餘外更無他事乎 豐翼曰中國晏然無他所聞矣 世器曰回子國近有叛意謀動兵戈而似不必大可憂慮也 予曰回子國地方屬於何邊乎 世器曰此國近於西蜀也...」

(51) 《日省錄》卷 84, 고종 6년(1869) 4월 5일 首譯 見聞別單 中 「...近者當十錢私鑄之弊滋甚制樣漸小民不肯通用亦難防禁...」

(52) 《高宗實錄》卷 11, 고종 11년(1874) 1월 6일 「...敎曰淸錢之當初通用是不得不然之事而到今物貴貨賤日甚一日莫可支保云言念民情錦玉靡安趁即變通亦是不得不然之事自今以後淸錢通用一併革罷自廟堂行會於八道四都又敎曰各營各司正月當公納竝以淸錢特爲捧納自二月當爲始如例常平錢捧上事分付...」 조선의 화폐문제는 James B. Palais, 1975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8장 화폐정책 참조

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표 3 참조)) 이 때부터 回還使臣들의 보고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없었다.

2. 朝日關係의 ‘停頓’과 高宗의 對外關心 增大

1871년 20세의 국왕 고종은 대보단에서 명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⁵³⁾ 고종은 청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대외관계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건청사신과의 자세한 의견교환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전, 1866년의 프랑스 함대의 침입과 제너럴 셔먼호 사건, 계속 되는 이양선 출몰, 1868년의 오페르트 도굴사건, 조·러 접경지역의 불안,⁽⁵⁴⁾ 일본의 침공설 등으로 고종의 인식은 조선조야 전체에서 느끼는 위기의식과 ‘斥洋’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겠다. 고종의 대외관계에 대한 질문과 首譯別單과 書狀官의 보고도 단편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음을 이미 살폈다.

1871년에서 1873년간에는 <표 1>에서 보듯이 청에 파견된 사신횟수가 5회였다. 1871년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종이 병인양요 전후 洋夷에 대해 질문한지⁽⁵⁵⁾ 수년이 지난 후 辛未洋擾 直前 1871년 3월 사신문답에서 처음으로 洋夷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표 3) 참조) 그러나 조선정부에 청의 咨文이 도착한 후인데도 미국배가 올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국왕과 正使모두에게 부족했다는 것은 다소 의외

(53) 《高宗實錄》卷 6, 고종 6년(1869) 5월 10일부터 추모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54) 당시 조러접경지역의 러시아영토 개간에 越境 조선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高宗實錄》卷 6, 고종 6년(1869) 10월 22일. 卷 7, 고종 7년(1870) 2월 1일, 윤10월 3일 등 참조

(55) 《日省錄》卷 44, 고종 3년(1866) 8월 23일

라고 할 수 있다.⁽⁵⁶⁾

신미양요를 겪은 조선은 1871년 4월 24일에 척화비를 세우고⁽⁵⁷⁾ 신미양요 후인 5월 25일에는 강화도 경비를 강화하고 孔子의 학문을 더 열심히 할 것을 천명했다. 이 당시 서장관과 수역의 별단도 황제의 勤學과 청 내부의 가뭄과 그 대책, 홍수와 回匪에 대한 것 정도에 그치고 있다. 洋夷에 대해서는 首譯 玄鑠의 보고 중 청 내부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보조가 깨어졌다는 것이 있었다. 갈등의 원인이 상업이득에서의 반목이었다는 것이다.⁽⁵⁸⁾ 이런 정보는 조선 정부의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와 관련되어 통상을 불허하는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표 3〉에서 보듯이 1872년에 오면 기존의 사신문답의 수와 내용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고종은 먼저 황제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이전에도 고종은 황제에 대해 물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었다. 1872년 4월의 접견에서 국왕은 황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듣기 시작했다.⁽⁵⁹⁾

고종은 청의 사정에 대해 자세한 탐구를 요청했었고 돌아온 후에도

(56) 《日省錄》卷 108, 고종 8년(1871년) 3월 22일 「予曰遠路無事往還乎姜曰王靈攸(暨)無事往還矣 予曰聞見事件見之而其外又有何事乎 滄曰此外無文蹟可據之事矣 予曰中原洋夷今亦多有之乎 滄曰比前年甚少今則不過百許名矣 予曰美國事咨文之出來在彼中聞之而其來不來當何居乎 滄曰臣等留館時已知咨文之出送而禮部官之言皆謂美船必不出去而遠夷事亦難推度則其來不來無以指的仰對矣 予曰回匪近則平定乎 滄曰雖未討平亦不猖狂只是防守運糧而不足為深憂云矣」

(57) 《高宗實錄》卷 8, 고종 8년(1871) 4월 24일

(58) 《同文彙考》四 p. 3826 고종 8년(1871) 3월 22일 冬至兼謝恩行首譯 玄鑠 聞見事件 中 「...洋夷部落之中英法兩國鳩聚各樣物貨交易於中國取其利剩兩國相分自是定規而挽近物貨之辦備每每英多法少及其分利則依舊相半兩國之甘苦懸殊自生齟齬英夷竟至於舉兵侵法屢月爭鬪是如是白齊...」

(59) 《日省錄》卷 121, 고종 9년(1872) 4월 4일 「...予曰獲瞻皇上乎 致序曰三四次宴禮時獲近皇上而舉止凝重視瞻不苟有人君氣象近又篤勤講學留心事務親摠萬機舉皆顛仰可見其愛戴期望之群情矣...」

〈표 3〉 고종의 회환사신 대외관계 문답의 종류(1864~1876)

일시	종류	질문수	(1)	(2)	특이사항
64.3		9	1		
64.5		14	3		
65.2		9	3		
65.4		8			
66.3		4			
66.8		8	3		
67.3		4	1		
68.3		4			
69.3		5			
70.3		5			
71.3		5	2		
72.3		26	1	1	國王 질문수 격증
72.4		38	5	1	書狀官 召見 - 일본과 청의 교역
72.12		36	1		
73.4		48	12		
73.8		71	26	3	일본의 서양화와 內亂가능성
74.3		48	7	1	일본 및 五國황제 朝覲, 월남우려
75.4		34	1	2	光緒帝 및 황실질문 多 서양 및 일본(對臺灣)의 도발 질문
75.10		5			回還使臣 京報, 外各國新報 가져 오고 일본의 청에 공사관 개설 보고
75.11		21	11	1	洋貨가 清市肆에 편만.
75.12		12(?)	1	1	청의 양인·왜인의 수. 이유원이 淸인과 朝日 관계 대화하는 것을 보고.
76.3.6		12	1	1	청의 양인·왜인의 수
76.3.21		31	2	2	청의 양인·왜인의 수
76.9		81	16	1	고종, 중국의 개항장체제(五口通商體制) 질문

비고 : (1) 고종의 서양 및 기타국에 대한 질문

(2) 일본에 대한 질문

(3) 전체질문수에서 (1)(2)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내부의 사정이나 고종의 단순한 호기심과 관계된 것이다.

(4) 《日省錄》《承政院日記》에서 작성

그 말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⁰⁾ 이로 볼 때 국왕은 서양과 청의 정세를 탐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72년 4월의 회견사신 대답에서 고종은 무려 26개의 질문을 正使에게 던졌다. 이전에 질문이 고작 10개를 넘지 못했고 불과 한해 전 1871년 3월 접견 시에 고작 5개의 질문을 던졌음을 볼 때 이는 큰 변화이다. 같은 달 말일 경에 書狀官 朴鳳彬도 고종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국왕이 書狀官을 별도로 召見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書狀官의 역할⁽⁶¹⁾을 고려할 때 고종은 공식적인 보고와는 다른 정보를 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미양요를 통한 조선 내부의 피해와 대외관계 특히 일본의 미국에 대한 태도 등⁽⁶²⁾이 조선에 알려졌기에 고종은 그러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872년 4월 같은 문답에서 일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고종은 접했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보자.

閔致庠(正使) : 다른 일의 정황이 있는데 상세히 알지는 못하고 듣건대 지난 가을 洋夷가 이윤으로 왜인들을 꺾어서 와서 중국과 더불어 재화를 통용할 것을 요청한데 조약서가 이미 있으니 장차 교역할 것이라고 합니다.

高宗 : 그런즉 중국은 장차 어떻게 왜인을 대할 것 같은가?

閔致庠(正使) : 이미 신복(臣服)의 나라가 아닌즉 왜인을 신(臣)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⁶³⁾

(60) 《日省錄》卷 121, 고종 9년(1872) 4월 4일 「...予曰去時已諭之而果詳探事情而來乎...」

(61) 각주 41) 참조

(62) 일본은 명치유신 전에도 朝美간의 중재자 역할을 시도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일본을 의심하였다. 유영익, 1992 앞의 논문 pp. 42~46 참조

(63) 《日省錄》卷 121, 고종 9년(1872) 4월 4일 「...致庠曰有他事情無以詳知而聞去秋洋夷利誘倭人而來要與中國通貨已有約書將行交易云矣 予曰然則中國將何以接待倭人乎 致庠曰既非臣服之國則倭人似不稱臣云矣...」

고종은 1871년에 청과 일본과의 사이에 맺어진 대등한 관계의 청일 수호조규(淸日修好條規)와 통상장정(通商章程)에 대해 알게 되었다.⁽⁶⁴⁾ 이 조약은 일본이 청의 속국이 아닌 대등한 독립국의 지위를 확인하는 조약이었다. 중화제국체제의 동요에 큰 영향을 끼친⁽⁶⁵⁾ 이 문제는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고종이 서장관 박봉빈과 대화할 때 이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청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고종은 일본이 藩國도 아니면서 어떻게 청과 조약을 맺게 되었는지 의아해 했다.⁽⁶⁶⁾

고종은 여전히 중화제국체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서양과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淸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서양인들이 자금성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법규를 마음대로 어기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⁶⁷⁾ 그러나 서장관 박봉빈은 청이 동치제의 혼례와 친정 후에 내부의 적을 소탕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적을 토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⁶⁸⁾

(64) 현재 규장각에 남아있는 淸日修好通商條約(奎 23534)은 강화도 조약(1876) 이후에 수집된 것이다. 국왕이 이 조약의 외교질서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통상조약의 세부규정을 알게 된 것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약의 체결과정과 세부항목들의 의미는 T. F. Tsiang 《Sino-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1870~1894》《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April 1933 을 참조.

(65) 서울대동양사학연구실 편, 1989 《강화중국사V》中 崔熙在, 〈중화제국질서의 동요〉 참조

(66) 《日省錄》卷 121, 고종 9년(1872) 4월 30일 「...予曰洋夷招入倭人與中國將有通貨之說云果然乎 鳳彬曰然矣 予曰倭國本非臣服於中國則胡不禁制乃反以通貨爲約耶 鳳彬曰昨年七八月之間洋夷果與倭人來請交易則重違洋夷之言不得已許之而倭國自前不受中國正朔矣...」

(67) 《日省錄》卷 121 고종 9년(1872) 4월 4일 「...予曰聞洋夷建層閣窺規禁中云果然否 致庠曰臣於紫光閣宴禮時見之則洋醜所居屋多在宮城逼近處層設高樓俯瞰禁中而不能禁止其設屋反高其宮檣以遮其俯瞰檣高比之舊築加於三分之二矣...」

이외에도 고종은 만주와 조선의 국경간 거리, 농사의 정도,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고종은 청 내부의 다양한 반란세력에 대해 정보를 구했는데 각종土匪와 回匪, 苗匪 등에 대해 질문과 대답이 있었다. 또한 琉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는데 서장관은 유구의 對西洋 교섭에 대해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보고했다.⁽⁶⁹⁾ 이같은 琉球의 사정은 서양과 아직 적극적인 수교를 하지 않고 있는 조선의 정책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고종은 청 내부의 갈등에 대해 자세한 관심을 가지면서 청의 중화주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종은 1872년 7월 2일에 進賀兼謝恩行으로 가는 朴珪壽⁽⁷⁰⁾ 일행에게 사행일정을 자세히 묻고 마지막에 특별히 청의 사정을 잘 탐문해 올 것을 지시했다.⁽⁷¹⁾ 고종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고종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1872년 12월 26일 회환 사신의 보고는

(68) 《日省錄》卷 121, 고종 9년(1872) 4월 30일 「...子曰中原無洋夷討平之意耶 鳳彬曰皇上大婚後臣工齊籲請親總庶務則討平洋夷次第件事而洋夷今雖猖獗即外寇也雲貴甘肅等地尚有土匪此則內憂也必先討內憂而次除外寇云矣...」

(69) 《日省錄》卷 121, 고종 9년(1872) 4월 30일 서장관 건문별단 「..琉球國人來學漢語者問彼國洋情則年來洋夷出沒無常威脅以商販行教等事竟以國少力弱雖難違拂然本國俗儉民貧衣葛啖蔬本無藉於外國之貨名許交易實無賣買所謂行教本國書籍尚未盡讀不必講學異書且國人舉皆務農亦無暇學書等說漫聽不肯則洋夷亦覺無聊漸次還歸日今之勢不足爲憂...」

(70) 박규수는 제너럴셔먼호사건때 평양감사를 지냈다. 1861년 청의 황제가 熱河로 피신하여 熱河問安使로 청을 다녀 온 후 1872년 황제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사신으로도 파견되었다. 박규수는 日講에서도 고종과 청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고종의 '실질적인' 친정의지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후에 고종의 對日政策에 이우원과 함께 핵심세력으로 활약했다. 박규수의 사상에 대해서는 孫炯富, 1997 《박규수의 개화사상연구》 일조각 참조.

(71) 《日省錄》卷 121, 고종 9년(1872) 7월 2일

대단히 자세하고 중요하다. 특히 고종은 박규수에게만 약 40개 정도의 질문을 던졌다. 이 사신단은 황제의 결혼을 축하하러 왔기에 참가했던 다양한 외국사신들에 대한 관찰이 가능했다. 그들은 국왕에게 황제와 그 측근들 그리고 각국의 지리와 북경의 건축물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했다. 박규수가 이 자리에서 「洋務運動」에 대해 보고한 것은 중요하다. 청이 유럽에 외교관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포나 화륜선 심지어 아편을 제조함으로써 서양의 이익을 삭감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⁷²⁾ 또한 유럽의 보불전쟁(1871년)으로 서양세력이 청에서 약화된 것도 보고했다.⁽⁷³⁾ 박규수의 보고는 아직은 중화주의와 청의 개혁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박규수는 서양과의 교섭을 생각할 가능성을 높였다.⁽⁷⁴⁾

1873년에 고종과 2차례(4월과 8월)에 걸쳐 사신 문답이 있었는데 이

(72) 《日省錄》卷 130, 고종 9년(1872) 12월 26일 「...予曰正使既是再次往還則中原朝士應多新舊交遊諸般事情亦應有探問之道也 珪壽曰臣到燕京聞有中國送使法國之事云故詳細探問則法國之人屢求中國之送使通好則以天津欽差大臣崇厚派定以庚午(1870- 필자)十月發行乘火輪船不數月至其國則法國王已被布國擄去而其國更立新君則中國之使致命於新君而還遍歷英國美國等各國今年四月回還復命云蓋其各國互相攻擊爭戰不息即其俗習而今亦有布法相戰之事故其留在中國者亦似不暇於交易賣買之務而稍敘其橫行蹤恣之氣矣大抵洋夷之來居都中今既多年而當初則洋貨賣買甚盛矣近日中國人皆覺洋物之徒眩人眼不中實用故不甚與之交易洋人以此失利向於江南用兵時中國多買洋砲用於戰陳而洋人以造砲得利近日則中國做造洋砲極為便利不買彼砲洋人又爲失利向來則中國商買實用火輪船故洋夷以此得利矣今則中國亦做造火輪船而不復費用彼又失利向來則彼以鴉片烟得利矣今則中國亦種花製烟故彼又失利彼夷以通商交易之計到處多建房屋所費甚多今既事事不利則房屋所費亦無充償之道見今事情漸有捲歸退去之勢云...」

(73) 이것은 국제관계의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본격적인 제국주의 시대는, 보불전쟁에서 승리한 독일의 국제무대 등장으로 시작되었다. Michael W. Doyle, 1986 《Empires》 Cornell University Press 10장 참조

(74) 尹素英, 1995 〈轉換期の朝鮮の對外認識と對外政策—朴珪壽を中心に—〉 お茶の水女子大學 人間文化研究科 박사논문 pp. 121~127

때의 문답도 長文인 것이 특징이다. 4월에 접견한 사신들은 관례적인 冬至兼謝恩行이었지만, 8월의 사신들은 황제친정축하의 進賀兼謝恩行이었다. 전자에 대해 고종이 던진 질문은 총 48개였는데 중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13개였다. 후자에서는 더 많은 71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각국관계 질문은 26개였고 청내부의 문제만도 30여개에 해당한다.(〈표 3〉 참조)

먼저 전자의 문답을 살펴보자. 박규수의 보고와 유사하게 청의 양무운동과 동치제의 친정을 통한 청의 자신감과 보불전쟁으로 다소 청에서 주춤해진 유럽세력이 그 내용의 주된 것이었다.⁽⁷⁵⁾

고종은 중국의 크기부터 몽고와 러시아 그리고 인도 등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문을 던졌다. 이들 국가에 대한 고종의 질문은 대단히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였다.⁽⁷⁶⁾ 이 때부터 고종의 관심은 질·량면에서 달라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의 양이에 대한 ‘통상거부’입장에 대한 청의 반응도 물었다.⁽⁷⁷⁾

한편 국왕 고종은 청에 대한 서양의 강압적 자세를 비판했다. 특히 1860년 영불연합군이 북경근처의 圓明園과 三山 殿閣을 약탈·방화한 것과 궁내에서 청의 법도를 무시하는 것을 비판하며 결국 武備에 깊은

(75) 《日省錄》卷 134, 고종 10년(1873) 4월 9일 書狀官 閔泳穆 건문별단 중 「...洋夷之留北京者今猶數百名邊海往來雖無常而中國之視之也如禽獸喜怒都不相較且其所資以爲利者即工事奇巧而中國人亦習見而得其妙故無所銜其巧而專其理云...」 《日省錄》권 134, 고종 10년(1873) 4월 9일 首譯 尹夏楨 건문별단 중 「...洋夷之往來出沒雖如前日挽近留接皇城者數頗稀少至於沿海通商之處亦無釁端...」

(76) 고종의 질문 중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山海關外即大國之地則與之(蒙古-필자)相連乎」 「俄羅斯是蒙古之外界乎」

(77) 《日省錄》卷 134 고종 10년 4월 9일 「...予曰我國不與洋夷有所相關大國以是多之云果然耶 壽鉉曰雖未有顯然可知之道而自可見辭氣之有如是稱道矣」

관심을 보였다.⁽⁷⁸⁾

고종은 서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이 서양을 적극적으로 몰아내지 않는 것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청에서는 1870년의 天津教案 이후 '반서양'적인 입장의 「清議」운동이 활발해졌다. 따라서 西太后의 恭親王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다.⁽⁷⁹⁾ 이러한 입장에 대해 고종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고종의 친정직전 진행된 1873년 8월의 사신문답은 대부분 청내부의 문제와 서양과 일본관계의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황제친정과 황태후의 徽號稱慶을 축하하러 간 사신들이었기에⁽⁸⁰⁾ 각국에서 온 사신들을 만났다. 그 내용을 보면 황제신상·농사의 풍흉·土匪의 종류(捻匪, 回匪, 響馬賊, 越匪, 苗匪 등)·러시아와 유럽의 차이·일본내정 변화(明治維新: 필자)·서양국가들과 청의 관계·유구·청의 주변국과 조선의 관계·조선의 척양에 대한 청의 반응·청 궁궐의 구조 등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고종은 각국의 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유구·여진·暹羅(필자: 태국) 등이 조선초기에 조공국임을 확인하기도 했다.⁽⁸¹⁾

(78) 《日省錄》卷 134 고종 10년 4월 9일 「...予曰洋夷尙在城內而終未逐出其所留處在於紫光閣太和殿何邊乎 壽鉉曰洋夷之尙在城內者分在於王河橋邊宣武門內紫光閣外而紫光閣即玉蠓橋西邊與太和殿西距稍遠矣 予曰西山在於皇城外自何時始起此山乎 壽鉉曰自大明已有之矣 予曰皇上亦或遊豫於此云耶 壽鉉曰今則燒盡無餘矣 予曰其爲洋夷之所燒乎 壽鉉曰然矣 予曰過關時無下馬乎 壽鉉曰無下馬者矣 予曰然則關內亦騎馬乎 壽鉉曰關內則乘輿行之矣 予曰洋夷之在於北京者猶爲數百名則散在沿海者似必尤多固難蕩掃然以大國之武備未除此患足可憤慨也武備之多寡則何如云耶 壽鉉曰八旗軍兵爲二十餘萬騎云矣...」

(79) 崔熙在, 1989 <중화제국질서의 동요> 《講座中國史》V pp. 218~219 참조

(80) 《日省錄》卷 134, 고종 10년(1873) 3월 26일

(81) 《日省錄》卷 139, 고종 10년(1873) 8월 13일

당시 고종은 일본에 대해서도 중요한 보고를 받았다. 고종은 일본의 정치제도, 특히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일본의 內亂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⁸²⁾ 일본인들이 북경에서 서양인들의 복색을 따르는 것을 보고받은 고종은 이어서 황제를 알현할 때 서양인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도 물었다. 의복문제와 관련된 청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함을 사신은 보고했고 국왕은 청과 서양의 관계가 책봉과 조공의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⁸³⁾ 고종은 동아시아 외교질서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러나 청의 洋船을 제조하는 능력이나 황제의 친정 후에 서양인들을 몰아낼 것을 청이 원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받았다.

고종은 청내부에서 한족과 호족을 구별하는지, 한족들이 명을 그리워하는지 조선이 서양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음을 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궁금해했다. 나아가 고종은 몽고나 서양에서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했다.⁽⁸⁴⁾ 이는 무분별한 청에의 의존이라든가 「斥洋」과는 다른 의식을 고종이 가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박규수의 보고가 이루어진 1872년 시점에서 朝日關係는 결정적

(82) 《日省錄》卷 139, 고종 10년(1873) 8월 13일 「...予曰倭人數十餘名來在皇城而年前則服色尙守渠國之制云矣今則多效洋夷之樣云爲洋夷之所誘變其本色耶 根弼曰果然矣而舉一國欲從洋制云必生內亂矣 敬源曰倭醜果着洋服今年春間乘洋船隨洋醜而來接於東牌樓近地廢寺初有久住之意六月初傳其國書違忙即歸中朝之士多言渠國必有內亂云矣 字熙曰所謂倭主者和同毀棄經傳專尙邪教至於衣服制度皆如洋夷之一樣矣 予曰東牌樓何處耶 根弼曰在東街而近於會同館矣 予曰倭國今無關白則洋夷之通倭乃是倭主之所爲耶 根弼曰倭主引入洋會藉其力而除去關白自以謂總攬權綱而其實則獨坐空山如引虎自衛矣 敬源曰今則洋與倭無異矣...」

(83) 《日省錄》卷 139, 고종 10년(1873) 8월 13일 「...予曰西洋諸國人見皇帝時服色何如耶 根弼曰各服其服而朝見矣 敬源曰初以中國服色引見爲令矣渠輩不從終必以渠國服色進見云矣 予曰洋諸國無朝貢乎 根弼曰乃是通好也非朝貢矣 敬源曰無朝貢而與隣國交好之禮相同云矣...」

(84) 《日省錄》卷 139, 고종 10년(1873) 8월 13일

으로 단절되고 있었다. 일본과 조선은 명치정부 수립 후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고 새로운 체제를 조선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⁸⁵⁾ 그러나 1871년까지 대마도를 통한 외교관계가 형식적이거나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본내부에서도 아직 對朝鮮 강경책이 정책화되지 않았다.(<표 4> 참조)

1870년 5월에 돌아간 일본외무성 관리는 조선정세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그 결과 외무성에서 太政官에게 조선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세가지인데 첫째는 조선과 관계를 끊는 고립정책이고, 둘째는 조선에 직접적인 강압책을 쓰는 것이고, 셋째는 청과 대등한 관계를 맺은 후 그것을 통해 조선을 압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두 무력사용에 대해 언급했다.⁽⁸⁶⁾

1871년 7월 14일 「廢藩置縣」을 통해 대마도를 통한 朝日關係는 종말을 고하고 일본 외무성이 직접 조선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내에서 청과의 관계개선 후 조선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세 번째 안이 우세해져서 柳原前光을 청에 파견해서 1871년 7월 29일에 청과 수호조규를 조인했다.⁽⁸⁷⁾ 거기서 얻어진 자신감으로 일본의 관리들이 동래부에서 전례와 달리 직접 동래부사와 담판해서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문제를 일으켰다. 즉 동래부사를 접견하고 직접 書契를 제출하겠다는 '倭館欄出'사건이 이듬해 1872년에 발생했던 것이

(85) 1장 1절 참조

(86) 《日本外交文書》第3卷 문서번호 89, 〈朝鮮政策三箇條伺件〉明治3年4月日缺

(87) 청과의 수호조규체결에 관한 일본 내부의 논의는 彭澤周, 1969 《明治初期日清韓關係の研究》書房刊 pp. 24~33, 玄明詰, 1996 〈개항전 한·일 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찰—일본의 개항부터 왜관점수까지 일본사 이해를 중심으로〉《國史館論叢》제72집 pp. 263~265 등 참조

〈표 4〉 고종친정전 대일교섭시 일본측의 사실판견과 조선과의 관계

날짜	종류	일본측 파견목적과 대표	특이사항
1868년 3월~1869년 9월		對馬島主 宗義達이 樋口鐵四郎을 大修大差使로 임명. 일본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통고.	訓導 安東峻의 거부
1869년 9월~1870년 6월		外務省에서 구체적인 對朝鮮政策논의 시작. 佐田白茅, 森山茂, 齊藤榮等으로 조선을 탐색케 함	佐田白茅, 일본 조정에 무력사용 가능성 건의
1870년 5월~1870년 8월		對馬守 宗氏 通詞 浦潮最助과견하여 교섭 가능성 타진	무력 사용 가능성으로 혼도를 위협
1870년 9월~1871년 9월		森山茂, 廣津弘信, 吉岡弘毅를 外務성에서 직접 파견	외무성에서 서계를 예조 관서와 東來府使, 釜山僉使앞으로 보내 음
1871년 8월~1872년 8월		일본의 '廢藩置縣' 통고. 대마도에 縣을 설치. 宗重正을 外務大丞에 임명. 森山茂, 廣津弘信, 吉岡弘毅를 外務성에서 직접 파견	'天子'란 용어를 사용하고 新印사용이 문제가 됨. 양복과 火輪船이용. 1872년 5월에 倭館欄出 사건 발생.
1872년 9월~1872년 11월		花房義質, 森山茂, 廣津弘信등이 파견됨	외무성의 倭館接受(실제 점령)가 목적.
1873년 3월 4일(양)			왜관점령
1873년 7월(양) 이후			정한론 갈등 후 대만정벌
1874년 4월(양)		외무성에서 사태를 더 조사하기 위해 森山茂를 파견하기로 함	동래 주재 外務성관료인 奧義制가 조선의 대일본 정책의 변환 가능성 알림. 동래부 관료 경질

비고 : 《日本外交文書》, 《日省錄》에서 작성

다.⁽⁸⁸⁾ 일본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위는 淸日修好條規를 이용한 조선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⁸⁹⁾ 즉 청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이용했고 조선에 대해서는 중화주의체제를 이용하면서 압박을 가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국왕 고종은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만 국왕은 왜관난출의 책임을 지는 동래부사, 훈도, 군관 등에게 待罪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⁹⁰⁾ 鄭顯德(東來府使), 安東峻(訓導) 등 大院君 외교정책의 일선에 있던 관료들은 동래에서 여전히 일본에 대한 「書契修理後呈納」이라는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었고, 일본은 조선에 대해 강압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단절되었다. 동래의 왜관은 일본에 의해 1873년 3월 4일에 ‘大日本國公館’으로 개칭·점령되었다.⁽⁹¹⁾ 여기에 대해 동래부사는 왜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무역(潛商도 포함)금지를 선포했다.⁽⁹²⁾ 동래에서의 조일간의 갈등과 일본내부의 갈등으로 고종은 일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일본에 대해서 고종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1873년 8월의 회환사신접견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9월 3일

(88) 〈표 4〉《承政院日記》 고종 9년(1872) 6월 7일, 6월 8일, 6월 11일 《日省錄》 고종 9년(1872) 6월 7일, 6월 8일, 10월 3일 참조.

(89) 청에 대해서도 「淸日修好條規」의 일본측 원안은 불평등조약과 평등조약 두 가지였다. 평등조약을 맺더라도 조선에 대해 우월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측 의도였다. 彭澤周, 위의 책 pp. 24~33 참조

(90) 《日省錄》卷 127, 고종 9년(1872) 6월 7일 참조.

(91) 조선쪽의 고자세로 조일관계가 停頓상태가 되었다는 입장은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pp. 277~296. 양쪽의 세계관 차이에서 비롯된 강경한 자세를 비판하는 입장은 彭澤周, 1969 위의 책 pp. 16~23. 대마도의 책임을 묻는 것은 玄明詰, 1996 위의 논문.

(92) 田保橋 潔, 앞의 책 pp. 294~296 1873년(고종 10년) 10월 29일 동래부사의 포고문 참조

慰諭使⁽⁹³⁾로 경상도 지역에 파견한 金奎軾과 고종이 나눈 대화이다.

高宗 : 동래부는 가 보았느냐?

金奎軾 : 동래에는 難이 심하지 않아서 그 경계를 지나 들어가지 않고 다만 關文을 보내는 일로 구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高宗 : 왜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

金奎軾 : 전해들은 말로는 감히 잘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高宗 : 인심은 평안하던가?

金奎軾 : 그렇습니다.

高宗 : 왜인들에 과연 내란(정한론을 둘러싼 갈등 : 필자)이 있다고 하던가?

金奎軾 : 혹 그렇게 도는 말이 있는데 파견한 사신이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감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高宗 : 들은 바를 따라서 말해 보아라.

金奎軾 : 어찌 감히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일로써 군주 앞에 아뢰겠습니까?

高宗 : 倭主가 정사를 보게 되고 關白이 축출되었으며, 또 그들이 洋夷와 상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회환 사신이 왔을 때 들었기에 이렇게 묻는 것이다.

金奎軾 : 이러한 말은 신이 동래부 營下에 있을 때 訓導가 道臣에게 글을 올리는 것을 바로 곁에서 목격하였습니다.⁽⁹⁴⁾

고종은 한달 전 청에 다녀 온 사신을 통해 듣고 동래부를 통해서 일본의 변화 즉 명치유신과 정한론에 대해 확인하고 있었다.⁽⁹⁵⁾ 그런데 고

(93) 당시 경상도 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한 피해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하여 파견되었다.

(94) 《承政院日記》고종 10년(1873) 9월 3일 「...上曰往見東來乎 奎軾曰該邑則不甚被災故過其境未入邑府只發關施恤矣 上曰倭人無主張果然否 奎軾曰未敢以傳說詳知矣 上曰人心晏然乎 奎軾曰然矣 上曰倭人果有內亂云耶 奎軾曰或有傳說而送使不來也故未敢的知矣 上曰隨其所聞而言之也 奎軾曰豈敢以未可的知之事仰達於君主之前乎 上曰倭主視務關白見黜相通洋夷之說向於燕使還來也聞之故有此及問矣 奎軾曰此說則臣在於營下也訓導以書通于道臣者臣果傍見矣...」

(95) 《日省錄》卷 139, 고종 10년(1873) 8월 13일

종의 질문에 현직관료인 金奎軾이 어렵게 대했다는 것은 특이하다.

大院君이 지방의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기에⁽⁹⁶⁾ 고종의 대외 정보입수와 정책마련에는 결국 親政이라는 계기가 있어야 했다.

二. 高宗親政後 高宗의 對日政策變化

1. 高宗의 對外認識變化와 親政宣布

고종은 1871년부터 이미 관리임명에서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여 박규수, 이유원 등 친위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국왕은 예법에 관한 정책 강화,⁽⁹⁷⁾ 명나라 추모 제사등에서 이미 주도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大院君의 정책을 지지하는 범위안에 있었다.

신미양요 후 등장하기 시작한 大院君 정책에 대한 비판, 예를 들어 경복궁 重修·當百錢발행·願納錢징수·서원철폐에 대한 유생들의 반발·국왕의 성년 등이 친정선언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⁹⁸⁾ 고종 친정 결심의 동인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종 친정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중국쪽 사정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 1872년부터 고종은 청의 황제에 대해 실질적인 질문, 즉 황제의 학문과 황후의 간택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회환사신들도 황

(96) 연갑수, 1991 <대원군집정의 성격과 권력구조의 변화> 《한국사론》27 서울대 국사학과 참조

(97) 고종이 직접 《五禮便攷》 제작을 지시하고 열람했다. 《高宗實錄》卷 8, 고종 8년(1871) 7월 5일 참조

(98) James B. Palais에 의하면 대원군정권은 개혁을 추구할 때 토지소유 엘리트와 유교적 사회질서를 그대로 유지시켰으며, 외부침략에 대해 강력히 저항했기에 붕괴되었다. 정책실패가 고종친정의 계기가 되었지만 고종의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려 했다. James B. Palais, 위의 책, p. 3.

제에 대해 자세히 대답했다.⁽⁹⁹⁾ 고종은 同治帝가 다음 해(1873)에 친정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고에 접하고 백성의 뜻에 합하는지 질문을 했다.⁽¹⁰⁰⁾

이 문답에서 서장관은 동치제의 숙부인 恭親王에 대해 비판을 했다. 즉 서양세력을 끌어들이는 원인이 공친왕에게 있지만 동치제가 친정을 하게 되면 서양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인식을 피력했다. 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청내부에서 1870년대에 제기된 「淸議」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¹⁰¹⁾ 다음은 이를 잘 보여준다.

高宗：洋夷가 중국에 침입한 것은 공친왕이 안에서 옹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朴鳳彬(書狀官)：그렇습니다.

高宗：공친왕은 왕의 숙부인데 서양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재화를 유통해서 해가 됨으로, 백성들이 점차 오염이 되는데 어찌 이럴수가 있는가?

朴鳳彬(書狀官)：공친왕이 그 뇌물로 이익을 보고 있고 洋夷를 뒤에서 지지 하니 사람들이 비록 금하는 마음이 있으나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¹⁰²⁾

고종도 공친왕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¹⁰³⁾ 이로 보건대 고종은 동치제와 공친왕의 관계를 고종 자신과 大院君간의 관계로 환원해

(99) 《日省錄》卷 121, 고종 9년(1872) 4월 4일「...予曰獲瞻皇上乎 致庠曰三四次宴禮時獲近皇上而舉止凝重視瞻不苟有人君氣象近又篤勤講學留心事務親摠萬機舉皆顛仰可見其愛戴期望之群情..」

(100) 《日省錄》卷 121, 고종 9년(1872) 4월 30일 「...予曰皇上聰明好學親總庶政以副民望云果然乎 鳳彬曰皇上天姿英明好學崇儉朝野之期望藹藹矣...」

(101) 청조의 중흥의식과 「淸議」운동은 崔熙在, 앞의 논문 pp. 217~223 참조

(102) 《日省錄》卷 121, 고종 9년(1872) 4월 30일 「...予曰洋夷之侵犯中國恭親王爲內應而然云果然乎 鳳彬曰然矣 予曰恭親王以皇上之叔洋夷不爲禁制而乃反通貨其爲害民漸至浸染豈可以如是耶 鳳彬曰恭親王利其賄賂陰護洋夷朝野雖有禁制之心莫敢誰何云矣...」

(103) 《日省錄》卷 121, 고종 9년(1872) 4월 30일 「...予曰恭親王爲天子叔不以國招入外敵亂其國家其人之不善可知也...」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친왕은 서양에 우호적이었고, 大院君은 쇠국으로 일관했던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¹⁰⁴⁾

正使로 황제의 결혼 축하에 다녀 온 박규수도 축하연에 참가한 다양한 국가의 모습을 소개함과 아울러 동치제의 친정에 대한 청측의 기대를 고종에게 전했다.⁽¹⁰⁵⁾

고종은 친정직전(1873년 11월 전)까지 계속 황제 친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1873년(고종 10년) 4월 김수현을 정사로 하는 회환사신단과의 접견에서 서양의 침략과 청의 무비상태에 대한 걱정을 보여주었다. 서장관 민영목은 고종의 질문에 친정을 통한 회복을 강하게 암시했다.⁽¹⁰⁶⁾ 다음은 그 내용이다.

高宗 : 洋夷가 북경에 거하는 자가 오히려 수백 명이 되는데 연해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반드시 더욱 많을 것인 즉 大國의 武備가 이런 근심거리를 없앨 수 없음을 가히 분한 일이다. 무비의 많고 적음은 어떠한가?

金壽鉉(正使) : 팔기군의 병이 20여만 명입니다.

閔泳穆(書狀官) : 大國의 武備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들 중에 논의가 있기를 한갓 병력으로 쫓아내면 승패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이제 황제가 친정을 해서 그 근본을 다스리면 자연히 다스리고 복종하는 도가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高宗 : 과연 근본을 다스리면 어찌 무비의 많고 적음을 기다리겠는가?

閔泳穆(書狀官) : 말씀이 지당하십니다.⁽¹⁰⁷⁾

(104) 安外順, 1996 앞의 논문 pp. 235~244 도 이 점을 지적.

(105) 《日省錄》卷 130, 고종 9년(1872) 12월 26일 「...予曰民情何如 珪壽曰物價高騰雖爲疾苦而民心則舉皆安堵明年正月皇上親政群情願望其有別般政令矣...」

(106) 《日省錄》卷 134 고종 10년 4월 9일 「予曰洋夷之在於北京者猶爲數百名則散在沿海者似必尤多固難蕩掃然以大國之武備未除此患足可憤慨也武備之多寡則何如云耶 壽鉉曰八旗軍兵爲二十餘萬騎云矣 泳穆曰大國武備非不足也聞彼中有識之論以爲徒以兵力驅逐則非但勝敗之難度方今皇上親政勤勵圖治先固其根本自然有制服之道云矣 予曰果能治其根本則何待武備之多乎 泳穆曰聖教至當矣。」

이는 단순한 청의 친정문제만 아니라 고종의 친정가능성에 대한 사신 자신의 강한 지지발언으로 볼 수 있다.

1873년(고종 10년) 3월 이근필을 正使로 하는 사신단이 청에 파견되었다. 황제 친정축하가 목적이어서 황제의 근황을 더욱 자세하게 알려왔다. 이들도 결국 고종의 결심을 굳히는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8월에 돌아온 회환 사신들은 단순히 일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에 대해 고종의 질문에 대응해야 했다. 이 사신 문답은 친정 전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고종은 청의 사정과 각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고종은 각국의 지리뿐만 아니라 (러시아·월남·일본·청·몽고 등) 君長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고종은 사행단과 접견문답에서 황제의 친정사실을 확인하고 청 내부의 반응에 대해 궁금해 했다. 황제권의 강화를 통한 황실권위 혁신에 관심을 보였다. 건물중수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그 한 예이다.⁽¹⁰⁸⁾ 이러한 청내부에 대한 고종의 이해심화와 동치제의 친정 그리고 각국에 대한 지식의 확대 등이 고종의 친정결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進講에서 고종은 국왕의 입장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부를 많

(107) 《日省錄》卷 134 고종 10년 4월 9일 「予曰洋夷之在於北京者猶爲數百名則散在沿海者似必尤多固難蕩掃然以大國之武備未除此患足可憤慨也武備之多寡則何如云耶 壽鉉曰八旗軍兵爲二十餘萬騎云矣 泳穆曰大國武備非不足也聞彼中有識之論以爲徒以兵力驅逐則非但勝敗之難度方今皇上親政勤勵圖治先固其根本自然有制服之道云矣 予曰果能治其根本則何待武備之多乎 泳穆曰聖教至當矣。」

(108) 《日省錄》卷 139, 고종 10년(1873) 8월 13일 「...予曰間已屢月矣仰瞻可也 根弼等仰瞻訖還爲俯伏 予曰皇帝姿質聰明而親總以後果有初政之可觀云耶 根弼曰天下想望太平而親總之後施措之如何臣未之詳聞矣 敬源曰衆庶之期望甚厚而姑無初政之如何云矣 予曰熱河與蘇州諸處行宮聞皆修繕云使臣得見之而熱河則在於何處耶...」

이 하게 되었다. 고종은 다른 왕들과 같이 《小學》《論語》《孟子》《通鑑》등의 서적을 공부해 왔다.⁽¹⁰⁹⁾

그런데 1872년(고종 9년) 4월부터 《通鑑》 등을 공부하면서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祖·宗의 차이, 四祖추존문제, 廟制 등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¹¹⁰⁾ 이것은 1872년(고종 9년) 회환사신문답이 자세해 지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1872년(고종 9년) 5월에 《詩傳》제 4권부터 다시 공부하는데 왕의 수신이나 백성에 대한 태도들이 강조되었다.⁽¹¹¹⁾ 고종은 1873년(고종 10년)이 되면서 기본 교과서인 《詩傳》 이외에도 참고도서로 청의 서적인 《萬姓統譜》, 《史記》, 《明史》, 《國語》《帝王年表》등과 조선의 서적인 《紀年兒覽》 등을 읽었다.⁽¹¹²⁾ 아울러 講官 중 상당수는 청에 다녀 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¹¹³⁾이었기에 進講에서 왕의 자질이외에 청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다. 이미 고종의 친정의지는 청의 정치변동과 아울러 고종 자신이 학문적으로 준비했던 것이다.

고종은 1873년 9월 경에 여러 관리들을 임명하면서 국왕으로서의 능동성을 보였다. 친정 직전에 좌의정 姜滌나 우의정 韓啓源등은 병을 이유로 고종과 대면하지 않고 있었다.⁽¹¹⁴⁾ 주지하듯이 고종은 大院君의 정

(109) 고종의 독서를 시기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小學(64.3-68.11), 大學(67.9-10), 論語(68.11-69.5), 孟子(69.5-72.4), 通鑑(72.4-5), 詩傳(72.5-친정시) 등

(110) 《承政院日記》 고종 9년(1872) 3월 28일 참조.

(111) 고종은 중국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天子外에 정치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비판했다. 대표적인 경우는 《承政院日記》 고종 9년(1872) 12월 18일, 고종 10년(1873) 9월 10일, 18일 進講 참조.

(112) 《承政院日記》 고종 10년(1873) 2월에서 10월에 걸쳐 進講에서 등장하는 書名이다.

(113) 대표적으로 박규수, 이유원, 이승보를 들 수 있다.

(114) 《承政院日記》 고종 10년(1873) 9월 5일

치를 비판한 최익현의 상소⁽¹¹⁵⁾를 계기로 내정에 대한 그의 비판을 받아들이며서 '실질적인' 친정체제로 들어갔다.⁽¹¹⁶⁾ 고종은 친정선포의 朝紙를 반포하려다가 이미 수렴청정 후 '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명령을 거두어들였다.⁽¹¹⁷⁾ 종래 민왕후 일족이 계속 고종의 친정을 요구해 왔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고종은 친정을 선포하는 능동성을 보였다.⁽¹¹⁸⁾

2. 親政直後 高宗의 對日政策變化

1873년(고종 10년) 11월에 친정을 선포한 고종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먼저 인사면에서 1873년 11월 12일 기존의 삼정승 즉 영의정 홍순목, 좌의정 강로, 우의정 한계원의 벼슬을 파면시키면서⁽¹¹⁹⁾ 이유원을 영의정에 박규수를 우의정으로 발탁했다.⁽¹²⁰⁾

(115) 최익현은 첫 상소와 달리 두 번째 상소를 올렸다가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이유로 제주도에 귀향 가는 처분을 당하였다.

(116) 1873년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친 최익현 상소를 둘러싼 고종의 친정선포에 대해서는 金永洙, 1990 앞의 논문 참조.

(117) 《承政院日記》고종 10년(1873) 11월 5일, 「上曰以昨夜筵說中兩條頒請朝紙之意有所下教而丙寅東朝撤簾後庶務既親總則今不當更提故所以詢及大臣欲爲遷收者也」 東朝는 趙대비를 가리키고 兩條는 친정과 관계된 것이다.

(118) 종래의 입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久保天隨, 1905 《朝鮮史》東京博文館의 제 3장 「일본의 교섭 및 개국」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왕비는 趙寧夏, 閔升鎬, 李最應, 李載冕 등으로 누차 왕에게 친정을 권고했지만 왕은 결심하지 못하였으나 대원군이 이를 알고 산장으로 퇴거했다고 주장했다. 민씨 일족에 의한 정권교체 설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논리이다. 田保橋 潔, 위의 책 p. 332과 신기석, 1973 《新稿 東洋外交史》탐구당 p. 62 등 참조.

(119) 이들이 반드시 대원군의 측근인사로서 정파정치를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고종은 이들을 복권시키려고 노력했었다. Palais, 위의 책 pp. 197~201에서 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120) 《고종실록》卷 10, 고종 10년(1873) 11월 12일과 12월 2일 참조

1873년(고종 10년) 12월에 고종은 처소를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법전에 있는 규정 외의 沿江收稅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1874년 淸錢革罷⁽¹²¹⁾를 위시한 일련의 개혁정치가 진행되었다. 청전 혁파문제는 고종의 친정 직전부터 사회화된 문제로서 이미 홍시형이나 최익현등이 淸錢 혁파에 대해 상소를 올렸다.⁽¹²²⁾ 청전은 청에서도 화폐가치 하락으로 문제가 있던 것인데 이것이 조선에서 유통되면서 물가양등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청전은 大院君의 주된 자금원이었다. 그런 이유로 심각한 혼란이 올 것을 알면서도 청전혁파를 지시했던 것이다.⁽¹²³⁾

고종은 국내 정치 기강의 확립을 위해 고종 11년(1874) 1월 13일에 암행어사 파견을 협의하고 각 지역에 암행어사를 파견했다.⁽¹²⁴⁾ 암행어

(121) 《高宗實錄》卷 11, 고종 11년(1874) 1월 6일 참조. 청전혁파는 이후 조선정부의 재정에 계속 혼란을 주었다.

(122) 《高宗實錄》卷 10, 고종 10년(1873) 10월 29일 홍시형 상소, 11월 3일 최익현 상소 등 참조

(123) 이 점은 延甲洙, 1997 <대원군집권기 대외인식과 국방정책>《19세기 한국사회와 문화의 변동》한국문화연구원 제 9회 학술토론회 pp. 133~134 참조

(124) 고종친정 직후 암행어사 파견명단은 다음과 같다. 작성 : 《日省錄》《承政院日記》 참조

지역	사람	기간(承命—回見)
京畿道	姜文馨	2. - 10. 24
江原道	柳 瑗	2. - 10. 27
全羅左道	呂圭益	2. - 12. 29
全羅右道	嚴世永	2. - 12. 16
慶尙左道	朴定陽	2. - 12. 13
慶尙右道	朴履道	2. - 75. 1. 26
忠清左道	金明鑑	2. - 10. 30
忠清右道	朴容大	2. - 11. 3
咸鏡道	趙秉世	2. - 12. 4
黃海道	趙秉弼	2. - 11. 13
平安道 淸北(平安北道)	沈東獻	2. - 11. 30
平安道 淸南(平安南道)	洪萬植	2. - 11. 28

사 파견은 지방에 대한 상세한 정보파악과 大院君 세력의 비리조사등과 관계가 있었던 듯하다. 고종은 이들 암행어사들을 일일이 접견하고 그들이 올린 書啓別單을 검토했다. 그리고 1875년 정월부터 삼정문란과 관계된 비리조사에 근거해 관리교체를 진행시켰다.⁽¹²⁵⁾

고종은 1874년에 들어서자 東來府使와 訓導의 교체 건을 이유원, 박규수와 상의했고 別差를 대마도에 파견할 뜻을 비쳤다. 고종은 오래 전부터 일본에 사람을 파견해 그들의 실정을 탐지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¹²⁶⁾ 이로 보건대 고종은 大院君과는 달리 對日外交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고종의 측근 관료는 박규수와 이유원, 이최응 등이었지만 고종 자신의 결정이 정책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을 다음과 같은 고종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卿이 임금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적해서 하는 말인가. 크고 작은 일이 비록 卿의 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단정지은 것인데 卿이 임금을 속였다고 하면 이는 내가 내 마음을 속였다는 것이다.⁽¹²⁷⁾

이 발언은 이유원이 관료들의 탄핵으로 수차례 사임의사를 표명해서 고종이 그를 변호한 것이다. 고종 친정 후 취한 정책에 대한 반대파로부터 상당수의 공격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 고종이 이유원을 변호한 것은 정책추진의 실제적인 주체가 고종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25) 《日省錄》卷 163, 고종 12년(1875) 1월 21일 義禁府계 참조

(126) 《高宗實錄》卷 11, 고종 11년(1874) 6월 29일. 이유원과 박규수가 동래 전 훈도 안동준을 파면하고 別差를 대마도에 파견할 뜻을 말하자 고종은 「予亦欲送探彼情者久矣」라고 이야기했다.

(127) 《高宗實錄》卷 12, 고종 11년(1874) 12월 16일 「教曰卿所欺君者指何事欺大小事爲雖出於卿手而斷於予心卿云欺君則是予欺予心也」

한편 고종은 경상감사에 兪致善, 동래부사에 朴齊寬, 혼도에 玄昔運 등을 각각 임명했다. 고종은 유치선과 박제관과 접견⁽¹²⁸⁾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암시했다. 특히 박제관과 접견해서 동래지역의 폐해에 대해 강력히 다스릴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래부에서 원래 왜관에 넘겨주어야 할 물품이 조일관계의 경색으로 쌓이게 되어 해당지역 관료에게 적체된 것을 비판했다.⁽¹²⁹⁾ 이는 조일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고종은 또한 동래부의 잘못을 찾기 위해 박정양을 파견하여 동래부와 경상감사의 잘못을 조사하도록 명했다. 박정양은 같은 해 12월에 동래부와 경상좌도의 상태를 보고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고종에게 제출했다.⁽¹³⁰⁾ 1875년에 동래부사와 혼도는 米木의 포탈 혐의로 처벌되었다.⁽¹³¹⁾ 1875년 1월 21일에 경상감사 김세호도 유배되었다.⁽¹³²⁾ 〈표 5〉에서 보듯이 동래부의 관직 교체는 고종의 대일외교 정책이 직접 반영된 것이었다. 관료의 교체는 大院君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128) 《日省錄》卷 146, 고종 11년(1874) 1월 9일과 10일 참조.

(129) 《日省錄》卷 146, 고종 11년(1874) 1월 10일 「予曰爾曾於安東府使時善治之績予已所檢知而東來異於他邑與倭接界故今此擇差下送實心對揚也齊寬曰謹當盡心對揚矣 予曰東來最是他國接界也益加勉勵也仍教曰下納米木布多積滯有此作奸之弊云當措處歸正而訓導以下如有不從令者先斬後啓可也 齊寬曰謹奉聖教詳探措處矣」

(130) 《日省錄》卷 160, 고종 11년(1874) 12월 13일 召見問答과 박정양의 〈書啓別單〉 《朴定陽全集》二 pp. 81~170 참조.

(131) 1874년 6월 이후 혼도 안동준은 처벌을 위해 대기하다가 효수당했고 부사 정현덕은 7월에 유배되었다. 《日省錄》卷 152, 고종 11년(1874) 6월 29일, 卷 165, 고종 12년(1875) 3월 4일, 卷 153, 고종 11년(1874) 고종 7월 4일 참조

(132) 《日省錄》卷 161, 고종 12년(1875) 1월 21일.

〈표 5〉 동래부의 관원 재임 변화표

기간	관직	경상감사	동래부사	훈도	기타
1874년직전 (친정전)		徐衡淳(고종전-65.1) 李參鉉(65.1-68.2) 吳取善(68.2-69.6) 金世鎬(69.6.-73.12)	姜滄(고종전-66.5) 徐潁淳(66.5-67.7) 鄭顯德(67.7-74.1)	金繼運(고종전-67.5) 安東峻(67.5-74.1)	
1874년		俞致善(74.1.-74.7) 洪坵(74.7-75.6)	朴齊寬(74.1.-74.11) 黃正淵(74.11-75.8)	玄昔運(74.1-)	
1875년 이후		朴齊寅(75.6-77.12)	洪祐昌(75.8-77.8)	玄昔運 (1877未도 재임중)	別遣堂上譯官 金繼運(75.5) 파견

비고 : 《日省錄》《承政院日記》《高宗實錄》에서 작성

친정후 고종과 회환사신 문답을 통해 조선의 고립에 대한 고종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1874년 3월에 고종은 만주 지역에서 마적이 횡행하는 등의 청의 내치 문제점과 1873년 일본 사신과 5개국 사신이 연합하여 황제를 알현한 것 등에 의문을 표했다. 이는 청의 위상과 조선의 고립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다. 1874년 3월 서장관 李鎬翼은 일본이 서양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경에 공사관을 설치하려한다는 것을 보고했다.⁽¹³³⁾ 이러한 보고와 함께 고종은 동치제가 친정 후 서양 사신과 직접 만난다는 보고를 접하게 되고 청의 해이함에 대해 오히려 걱정했다.⁽¹³⁴⁾ 게다가 월남이 통상을 거부하다가 프랑스에 의해 침략 당했다

(133) 《日省錄》卷 149, 고종 11년(1874) 3월 30일 서장관 李鎬翼 문견별단 중 「...一日本國欽差大臣將於今年三四月間來駐北京開設公館如西洋諸國云云...」

(134) 《日省錄》卷 149, 고종 11년(1874) 3월 30일 「...予曰昨年六月日本國差遣使臣與五國使臣同時觀見云果然否 健朝曰西夷各國使臣來留皇城已爲十餘年屢次要觀而以皇太后垂簾難於引接拒之矣昨年皇上親政後無辭可諉始許接見而至有御史上章諫止竟不採施云矣 予曰紀綱比前委靡示弱於外國甚矣 健朝曰中國之人亦視以異類莫不憤慨然自庚申敗衄之後許以通商留館專事撫摩至有此引見之事其事勢可知而聞甚駭然矣 予曰洋人之勢比前何如...」

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종은 조선과 월남을 類比해서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된다.⁽¹³⁵⁾

이들 사신단이 고종 친정직전에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고종 친정 전에 大院君의 斥洋정책과는 다른 입장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1872년 청에 다녀 온 박규수 외에도 1873년 10월과 1874년 10월 冬至兼謝恩行으로 간 鄭健朝, 吳慶錫, 姜瑋(吳慶錫의 友), 李建昌 등이었는데 이들은 청측의 유력인물들과 조선의 위치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¹³⁶⁾ 이러한 조선정치인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당시 북경에 있던 미국공사도 본국에 그 사실을 보고했다. 다음은 그 일단이다.

...그러나 미국배들이 조선의 해안에서 철수한 후(필자 : 신미양요)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집권자들 중 더 사려깊은 일부는 그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다. 매년 오는 사행단이 북경에서 청의 지도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로우계목이 그들(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되었다...⁽¹³⁷⁾

(135) 《日省錄》卷 149, 고종 11년(1874) 3월 30일 「...予曰法國強盛昨年攻越南之時借軍械於中原云越南必困矣 健朝曰洋夷即本以通商爲長而越南獨不交易故以是見困云而此亦傳說未知其詳矣...」

(136) 尹素英, 1995 앞의 논문 pp. 178~188. 신미양요 후 조선사상계의 대원군정권에 대한 비판은 노대환, 1998 〈1860~70년대 전반 조선 지식인의 대외인식과 洋務이해〉《한국문화》20, 金河元, 1993 〈초기 개화파의 대외인식—오경석을 중심으로〉《釜大史學》17 등도 참조.

(137) 박일근 편, 1983. 《Anglo-American Diplomatic Relating to Korea》新文堂中 〈Papers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No. 141 Mr. Williams to Mr. Fish Peking, March 30, 1874 (Received May 26.) 「...But after the American flag had retired from his coasts, and there was time to review the whole affair, the more sensible part of the rulers began to see it in a different light. The members of the annual embassy had also had an opportunity to confer with the Chinese rulers at Peking, and learn from them all the real nature of Mr. Low's attempt to open amicable relations with their sovereign....」

이것은 일부 조선관료들이 신미양요 후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의 관리들은 청에서 새로운 서적을 상당량 구입해 오고 있었다.⁽¹³⁸⁾ 그리고 청측의 정보에 접한 뒤 고종도 기존의大院君의 통상거부정책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측은 고종친정 후 對日關係의 변화 가능성을 의무성 관료로 왜관에 머물고 있는 輿義制의 보고에 의해 알게 되었다.⁽¹³⁹⁾ 일본은 명치유신 후 조선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기에(〈표 4〉 참조) 書契 제출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력 사용을 계속 언급해 왔다.⁽¹⁴⁰⁾

이제 〈표 4〉에서 보듯이 明治政府는 森山茂를 파견하여 조선의 정세를 살피게 했고 太政大臣 三條實美도 각별히 주의해서 조선의 상태를 살필 것을 지시했다.⁽¹⁴¹⁾

이러한 때 고종은 전청사신과 중국의 咨文등을 통해 일본과의 외교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의 친정 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138) 박일근 편, 〈Papers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No. 141 Mr. Williams to Mr. Fish Peking, March 30, 1874 (Received May 26.) 「...At any rate we know that some of the Coreans in this city last year purchased many copies of all books about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monthly magazine published in this city, to carry back with them...」

(139) 《日本外交文書》第 7 卷, 문서번호 206 〈大院君引退ノ結果東來府使等 交渉セラルヘシトノ噂等報告ノ件〉 明治 7年(1874) 3月 14日과 207 〈東來府使等交渉ノ噂, 在館邦商ノ森曲等報告ノ件〉 明治 7年(1874) 4月 30日 참조

(140) 《日本外交文書》第 3 卷 명치 3 年 4 月 15 日(5 月 15 日) 문서번호 87, 〈外務省出仕佐田白茅等ノ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문서번호 88, 〈朝鮮國ヨリ歸朝セシ外務省出仕佐田白茅等ノ建白書提出ノ件〉 1870 年 당시 동래에서 교섭을 하는 의무성 관원들이 본국에 강화도의 효용과 무력 사용을 건의했다.

(141) 《日本外交文書》第 7 卷 문서번호 208 〈朝鮮ノ上遵守ス可キ箇條指示ノ件〉 明治 7年(1874) 5 月 15 日

주저케 하는 정보가 조선에 도착했다. 1874년 2월에 일본이 유구인의 학살 문제로 대만을 불법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청의 總理衙門(總署)이 1874년 3월에 영국과 프랑스의 공사관 관리와 총세무사 등을 통해 이 정보를 입수했고⁽¹⁴²⁾ 1874년 6월 3일에 淸 禮部가 조선에 咨文으로 보내왔다. 그것은 일본 내부의 정한론의 소식과 일본이 프랑스와 미국과 함께 조선에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와 함께 이들에 대한 조선의 개국에 대한 의향을 타진하는 형식이었다.⁽¹⁴³⁾

고종은 咨文이 도착한 몇일 후 이유원, 박규수등과 이 문제로 대화했다. 박규수는 대만 정벌 후 철병 중에 일본이 조선을 칠 가능성을 말했다.⁽¹⁴⁴⁾ 일본은 정한론의 과동을 겪은 후 그 불만을 해외로 돌리고자 조선 대신에 대만을 정벌의 대상으로 택했던 것이 사실이다.⁽¹⁴⁵⁾ 고종은 일본에 대한 강한 경계의 뜻을 표하며 각 지역의 방비를 튼튼히 할 것을 申飭했다.⁽¹⁴⁶⁾ 아울러 국왕은 咨文에 대한 回咨文에서 서양과의 통상 거부를 분명히 하며 일본의 정한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142) 《籌辦夷務始末》卷 93 동치 13년(1874) 3월 辛未條 참조

(143) 1874년 6월 3일자 청에부에서 고종에게 보낸 秘咨는 일본이 대만에서 조선으로 병력을 보낼 것이라는 정보와 프랑스·미국과의 통상권고안을 담고 있다. 《龍湖閒錄》四 pp. 315~316 「...日本尙有五千兵在長崎臺灣退兵後將從事高麗(朝鮮: 필자)法美與高麗前隙未解必以兵船助之高麗不足以敵三國若中國能令高麗與法美立約通商則日本勢孤不敢勞兵高麗之民得以保全...」《籌辦夷務始末》권 97 동치 13년(1874) 8월 甲申條

(144) 《日省錄》卷 152, 고종 11년(1874) 6월 25일 「...予曰今番咨文中臺灣長崎退兵云者何也 珪壽曰臺灣在福建之東是中國之地也長崎是日本屬島也其云退兵者似是用內於何國地方而歸路分留於臺灣長崎者尙爲五千當其退歸之時有事高麗之謂也...」

(145) 정한론의 자세한 내막은 蔡中默, 1975 <왜관을 직접점으로 한 한일의 외교섭사연구>, 《전북대학교 논문집》16, 金光玉, 1995 <근대 개항기 일본의 유구·조선정책> 《항도부산》제 11호 등 참고

(146) 《承政院日記》 고종 11년(1874) 6월 25일 《日省錄》卷 152, 고종 11년(1874) 6월 25일 고종과 이유원, 박규수의 대화 내용 참고.

청정부가 北京의 일본관원에게 군대를 동원한다는 망령된 주장을 꾸짖어 줄 것을 요구했다.⁽¹⁴⁷⁾ 아직까지 청의 권고는 조선정부의 참고사항일 뿐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일본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일본의 계속된 정한론을 자세히 알 겸 동래에서의 대일관계개선을 원했다. 청의 咨文에 대한 토론이 있는 며칠 뒤 고종은 서양과 교역에는 반대했지만 일본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비추었다. 박규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측에서 주장하는 ‘皇’, ‘勅’이니 하는 것은 일본내의 문제이며 그들이 조선에서도 그렇게 칭해 달라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때문에 일본의 書契를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¹⁴⁸⁾

〈표 6〉에서 보듯이 1874년 8월에 이르러 비로소 고종은 일본과의 관계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것이 곧 서구 세력과의 전면 교통을 의미하는 것 보다 일본과의 舊交 再開를 통해 일본을 서구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통로로 삼으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¹⁴⁹⁾

일본과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天子·皇·勅 등의 문자사용이었다. 대마도에서 書契를 고쳐서 가져 오면 받아들이자 는 박규수의 견해가 채택되었다.⁽¹⁵⁰⁾ 書契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본의 개편된 정치체제

(147) 《龍湖閒錄》四 pp. 318~319 「...伏乞部堂大人將此情願轉奏天階特降明旨曉諭日本管事人員殺勿稱兵妄動以全兩國生靈仍復洞諭法美使勿以兩無所益之事交涉紛緝俾海隅蒼生感頌帝力千萬祈懇隅祝之地」

(148) 《高宗實錄》卷 11, 고종 11년(1874) 6월 29일,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6월 29일 참조.

(149) 《日省錄》卷 164, 고종 12년(1875) 2월 5일 「...予曰今番差倭乘火輪船而來云此是與洋夷相通故也然此非先爲盤詰也.....予曰火輪船中原近日亦用之而水行甚神速云矣...」등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150) 《日省錄》卷 154, 고종 11년(1874) 8월 9일

〈표 6〉 고종친정 후 대일관계의 전개일지

날짜(음력)	내용
1874년 3월 20일	고종이 동래훈도의 교체 건을 이유원과 상의.
1874년 6월 24일	淸 禮部에서 密咨를 보내어 日本의 出兵說과 佛·美의 加勢說을 알려 음. 다음 날 조정의 次對에서 대책을 논의함.
1874년 6월 29일	領議政 李裕元和 左議政 朴珪壽가 日本 書契 접수를 거절한 책임을 물어 安東 晔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고 고종도 동의.
1874년 8월 9일	이유원이 부산훈도 玄昔運의 보고를 통해 문서를 고쳐 오면 구교를 재개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고종도 동의. 判書 趙寧夏 密函을 보냄.(관계개선의지) 왜학 훈도 玄昔運·別差 玄濟舜과 日本 外務省 森山茂가 공식 회견함.(고종친정 후 최초의 대일교섭) 여기에서 日本 外務卿이 조선의 禮曹判書에게, 外務大 丞이 禮曹參判에게 서계를 작성하기로 합의함.
1874년 9월 20일	중국에서 咨文이 와서 일본의 대만 점령을 알려 음. 서계의 글자 문제에 대해서는 고종이 의심스러워 하지만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밝힘.
1875년 2월 5일	동래부사가 장계를 보내 와 일본과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음을 보고.(大日本·皇上等 용어) 고종은 즉시(三懸鈴) 회답할 것을 지시. 몇가지 문자 문제는 접어두기로 함. 일본측 天子삭제
1875년 3월 4일	안동준 처형을 명함. 東來府使 黃正淵이 장계에서 조선정부가 항연을 베풀고 서계를 받아들일 때 의식 절차를 일본과 미리 정하고자 하는데 이견과 다르다는 것 지적. 고종은 이전대로 강행할 것을 지시.
1875년 5월 10일	일본과 수교 문제로 전임, 현임, 의정부 당상관들이 모임. 논점은 호칭 문제와 예복문제였다. 의견이 분분. 대신들 고종의 결정 요구.
1875년 6월 26일	동래부에서 일본관원과 대치상태임을 알려 음
1875년 7월 9일	의정부에서 洋服 입는 것은 반대하지만 문서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 칭호문제는 나중에 살피기로 하고 고종은 승인함.
1875년 8월 2일	동래부사 황정연의 보고에 일인들이 예복과 정문 출입 문제를 고집한다고 함. 이즈음 일본과의 교섭이 停頓됨.
1875년 8월 22일~25일	이양선이 蘭芝島(영종도 부근)에 정착하고 있음을 영종 부사가 보고함. 전투가 벌어졌다.
1875년 11월 9일	동래부 倭館欄出사건 多. 고종은 감사들에게 긴급 공문을 보내 자신의 지시를 받게 함. 15일 이최응은 일본의 원본 문서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 고종이 동의.
1876년 1월 3일	고종은 의정부에 모여서 대일본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
1876년 1월 5일~2월 3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다.

비고 : 《日省錄》《日本外交文書》에서 작성

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書契의 내용은 일본의 천황집권과 막부의 철폐, 廢藩置縣 등의 관제개편에 관한 것이었다.⁽¹⁵¹⁾

한편 1874년 9월 20일에 이유원은 고종에게 대만정벌과 정한론에 대해 보고하였다. 고종은 이유원과의 대화에서 왜 청이 일본의 ‘皇’이니 ‘大’字의 사용을 힐문하지 않는가를 궁금해 했다. 이유원은 일본이 청으로부터 멀리 있고 청도 일본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전하였다.⁽¹⁵²⁾ 고종이 청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의 한계를 더 실감하였을 것은 능히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대만사건에 대해 청이 일본에 피해 보상비와 시설물 설치에 은 50만냥을 배상했다는 정보가 다음 해 들어왔다.⁽¹⁵³⁾ 청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조선의 일본에 대한 자존감이 강화되조약시 조선으로 하여금 ‘大朝鮮’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⁵⁴⁾

고종은 동래부에서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자 동래부사를 교체하면서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 의정부관료와 함께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¹⁵⁵⁾ 고종은 다시 일본과의 교섭을 통해 書契를 받아들일 것을 명

(151) 《日本外交文書》제 8 권, 문서번호 16, 〈宗外務大丞ヨリ朝鮮國禮曹參判へノ書契案ニ關シ重テ伺ノ件竝ニ之ニ對スル三條太政大臣決裁〉 명치 8년 1월 31일 〈宗外務大丞ヨリ朝鮮國禮曹參判へノ書契案〉 참조.

(152) 《日省錄》卷 155, 고종 11년(1874) 9월 20일 고종과 이유원의 대화 참고

(153) 《同文彙考》四 p. 3829 고종 12년(1875) 4월 3일 冬至兼謝恩行書狀官李建昌聞見別單 참조.

(154) 1875년 2월 2일 조인된 「朝日修好條規」의 제목은 조선측원안에는 「大朝鮮國大日本國 修好條規」으로 일본측원안에는 「大朝鮮國大日本國 修好條規」으로 표기되어 있다. 《Treaties, Regulations, etc between Corea and Other Powers》 1891 Imperial Maritime Customs, Shanghai pp. 1~23

(155) 《日省錄》卷 160, 고종 11년(1874) 12월 10일 새로운 동래부사 黃正淵 접견시 「...予曰難處之事報于政府爲可而若報政府則予亦當入聞矣...」라고 했다.

했다. 일본측에서 ‘天子’라는 문자는 사용하지 않지만⁽¹⁵⁶⁾ ‘皇’이나 ‘大’字는 여전히 쓰고 있는 것에 대해 고종은 별반 문제삼지 않았다.⁽¹⁵⁷⁾ 그러나 文書呈納과 관계된 일본과의 관계는 옛체제를 고수하려고 했다. 즉 혼도를 통해 동래부사를 거쳐 조정에 書契가 전달되는 루트이다. 그러나 동래부사가 직접 동래부내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 두고 書契를 받고 수정 여부를 물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조선정부는, 왜관 혼도를 통해 동래부를 거치는 길을 무시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은 거부했지만 대마도와 동래부 중심의 외교 관계를 조선정부와 일본 외무성(정부)의 관계로 바꾸겠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¹⁵⁸⁾

원래 조선 정부는 일본의 화륜선 사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1872년 汽船을 타고 온 森山茂와의 교섭에서도 조선측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¹⁵⁹⁾ 이는 일본과 서구의 ‘內通’에 대한 우려였다. 친정 후 고종은 청의 화륜선 사용의 예를 들며 이것을 먼저 문제 삼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는 서양의 기술에 대해서 신뢰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고종의 주장에 대해 다른 대신들은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동의하게 되었다.⁽¹⁶⁰⁾

(156) 일본측은 書契에서 ‘天子’의 글은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承政院日記》 고종 11년(1874) 9월 20일

(157) 《承政院日記》 고종 12년(1875) 2월 5일

(158) 《日省錄》卷 164, 고종 12년(1875) 2월 5일 「...予曰所來書契終不受見殊非誠信之道且彼倭既有受見後如有難從之事雖百番見退渠當還受以去爲約今番第令取見苟有違格處更爲退斥未爲不可也 最應曰聖教誠然矣 炳國曰倭情本自狡點前言不可準信且書契之真謔相雜前所末有然一番詳檢後果有違格處據理退却實合事體矣 予曰館倭聞欲攔出以回議該府爲說云此不可許之其令萊伯出往館所別設宴餉以示慰恤之意而反覆曉諭似好矣...」 田保橋 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 朝鮮總督府中樞院 p364에서 이례적으로 ‘國王戚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國王’이라는 주체를 분명히 내세우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59)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pp. 270~271 참조

그러나 조선 측의 이러한 변화된 입장에 대해서 일본측에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어왔다. 그것은 宴饗日에 일본인들이 洋式大禮服을 착용하고 宴饗大廳 正門을 통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동래부사 黃正淵은 장계를 보내오는데 이에 대해 고종은 舊式에 따라서 할 것을 명했다.⁽¹⁶¹⁾

이즈음 청에서는 중요한 정치변동이 있었다. 1875년 4월에 조선에 청의 使臣이 파견되었다. 이 사신들이 온 목적은 同治帝 사망과 光緒帝 즉위를 통고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⁶²⁾ 고종은 이들과 같이 돌아온 1874년 10월에 파견한 사신단과 접견하면서 청의 정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¹⁶³⁾ 이러한 문제들도 고종으로 하여금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고려하게 했다고 하겠다.

동래부에서 森山茂와의 교섭에서 난항을 겪은 동래부사는 의정부에 동래문제에 대한 결정을 다시 요청했다. 그리하여 1875년 5월 10일에 고종은 時原任大臣 政府 六曹의 二品이상의 관리 35명을 모이게 하여 동래부의 書契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여기서 서계수납을 두고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게 되는데 李裕元, 朴珪壽, 李最應 등의 찬성 의견과 金炳學, 金炳國 등의 부정적인 의견의 두 가지로 갈라지나, 모두 고종의 판단을 요청했다. 고종은 종전의 입장 즉 서계를 받아들여 연향시 예복문제는 舊禮를 따를 것을 다시 고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를 日使에게 다시 責諭하고 堂上譯官 金繼運을 특별히 파견하기로 했다.⁽¹⁶⁴⁾

(160) 《日省錄》卷 164, 고종 12년(1875) 2월 5일

(161) 《日省錄》卷 165, 고종 12년(1875) 3월 4일

(162) 同治帝의 사망은 1874년 12월 5일이었고 光緒帝의 즉위는 12월 8일이었고 고종은 이 사실을 이듬해 1월 4일 義州府尹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다.

(163) 《日省錄》卷 166, 고종 12년(1875) 4월 12일 회환사신 召見問答

그러나 회담은 결렬되었다.⁽¹⁶⁵⁾ 일본측 회담의 책임자인 森山茂는 귀국 명령서를 받고 8월 21일에 일본으로 돌아가 동래의 정세를 보고했다.⁽¹⁶⁶⁾ 실제 森山茂는 회담을 잘 진행시킬 의도가 별로 없었고 일본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이것은 동래부를 방문한 영국관리가 영국 본국에 보고한 기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모리야마씨(필자 : 森山茂)는 플렁켓씨와 동래부의 교섭에 대한 문제를 나누면서 가장 좋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러나 그는 '프롤릭'호가 항구(필자 : 동래)에 들어섰을 때 그 배가 자신을 일본에 실어다 줄 일본배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것을 말하는 기색은 그가 당장에라도 한국과 불만족스러운 교섭이 중단되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⁶⁷⁾

(164) 《日省錄》卷 167, 고종 12년(1875) 5월 25일, 《承政院日記》 고종12년(1875) 7월 9일, 《承政院日記》 고종 12년(1875) 8월 2일, 《日省錄》卷 170, 고종 12년(1875) 8월 6일 등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165) 비록 신조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구형식은 구조약이 유효한 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일본측에서도 신조약을 맺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분명히 寔讐절차는 지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田保橋 潔도 1873년 즉 1872년의 왜관난출의 결과 조선과의 교섭 停頓은 조선쪽에 책임이 있지만 1875년의 교섭은 분명히 일본의 책임이 있음을 거론하고 있다. 田保橋 潔, 1940 위의 책 p. 390

(166) 《日本外交文書》第 8 卷 明治 8年 9월 3일(음력 8월 4일) 문서번호 46 〈理事上申ノ爲歸朝スヘキ旨指令ノ件〉과 9月 21日(음력 8월 22일) 문서번호 47 〈朝鮮國出張森山理事官ヨリ示達ノ草梁公館事務取扱心得書〉 참조

(167)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Vol I, II 1989 University Publication of America p48 〈주일공사 Parks가 외무경 Derby에게 보낸 機密文書〉 「...Mr. Moriyama put the best face on affairs in speaking about them(동래부에서 교섭 : 필자)with Mr. Plunkett, but the remark which he dropped, that when he first saw the "Frolic" coming into the harbour he thought she was a Japanese vessel sent to bring him away, shows that he himself is prepared to see his unsatisfactory intercourse with the Koreans discontinued at any moment」

즉 일본측은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래에 있던 森山茂는 副官인 廣津弘信으로 하여금 이미 3월 20일(양력 4월 23일)경에 군함 파견을 정부에 건의했다.⁽¹⁶⁸⁾ 森山茂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雲揚號가 동래에 들어와 있었다.⁽¹⁶⁹⁾ 당시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자랑하는 영국도 이 사실을 본국에 타전했다.⁽¹⁷⁰⁾ 즉 조선측과 교섭하는 日人들은 일본 외무성과 긴밀하게 연락했고 이 배의 출동이 미리 준비되었던 것이다. 森山茂의 귀국은 운양함과의 임무교대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이 시기 조선과의 전쟁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¹⁷¹⁾

- (168) 《日本外交文書》第 8 卷 문서번호 29, 〈朝鮮國內訌ノ際シ交渉促進ノ爲軍艦派遣アリ度旨具申ノ件〉明治 8 年 4 月 23 日(음력 3 月 24 日) 참조
- (169) 《日本外交文書》第 8 卷 문서번호 36, 〈軍艦「雲揚」渡鮮後朝鮮國側ヨリ決答ノ期日ヲ約束スルニ到リタル旨報告ノ件〉明治 8 年 4 月 23 日 참조. 이미 운양호는 동래 근방에서 명령대기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 (170)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Vol I, II 1989 University Publication of America pp. 41~42 (주일공사인 Parks가 Derby경에게 보낸 문서) July 17, 1875 Parks는, 일본이 조선근해에 2척의 군함을 보냈다는 내용의 5월 25일(양) 문서를 다시 언급하며 7월 중순(양)에 조선과 일본의 회담이 결렬되었고 일본의 군함 2척이 전쟁을 목적으로 조선근해에 가 있다는 소문을 보고했다.
- (171) 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 Vol I, II 1989 University Publication of America p 43 (주일영국공사 Parks가 외무경 Derby에게 보낸 極秘文書), pp. 44~45 24 July 1875 (주일영국공사 Parks가 외무경 Derby에게 보낸 機密文書) 「..In Japan I believe that public opinion will be in favour of a war with Corea, and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Government will care to endeavour to stem this feeling. The affair of Formosa(대만: 필자) has given increased confidence to the country, and in particular to the soldiery, who do not trouble themselves about the cost of wars. Being assured probably of the neutrality or the support of Russia, and believing also that Corea cannot expect active aid from China, the Government of Japan may count upon encountering no interference from other Powers in a quarrel with Corea, and feel that they are able to cope with her alone」

8월 25일에 영종도 부근인 蘭芝島에서 異樣船과 官軍과의 전투가 벌어졌음이 조선 정부에 보고되었다.⁽¹⁷²⁾ 특이한 것은 이 시대 조선정부의 기록에서 이 사건을 정부차원에서 토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영종도의 僉使인 李敏德에 대한 罷黜이 이루어지고 영종도를 인천 방어영으로 移屬시키는 조치를 했을 뿐이다. 다음 대화는 영종도 전투 후 고종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金炳國(우의정) : 이번의 이양선은 그 사정을 묻지 못해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릅니다.

高宗 :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른다. 이양선의 출몰은 다만 해마다 있는 일이다.⁽¹⁷³⁾

오히려 좌의정 이최응과 고종은 조선의 악화된 경제를 우려하고 있었다. 한편 동래에서 계속 日本人들의 ‘欄出’과 조선측 피해가 보고되었다.⁽¹⁷⁴⁾ 얼마 후 고종은 이최응의 발언을 받아들여 일본의 書契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지시했다.⁽¹⁷⁵⁾ 이로 보건대 고종과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영종도 사건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래를 통한 교섭의 연장선에서 다루고 있었다. 조선정부가 영종도 사건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¹⁷⁶⁾ 또한 청의 권고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입

(172) 《高宗實錄》. 《日省錄》권 170, 고종 12년(1875) 8월 25일 조 참조

(173) 《日省錄》卷 170, 고종 12년(1875) 8월 29일 「右議政金炳國曰今番異船既未問情未知何國人物也 予曰果未知何國之人而異船之來便成年例矣...」

(174) 《日省錄》卷 172, 고종 12년(1875) 10월 28일, 10월 11일, 《日省錄》卷 173, 고종 12년(1875) 11월 24일, 11월 16일

(175) 《日省錄》卷 173, 고종 12년(1875) 11월 15일 제목 : 「命日本書契直爲捧納明正事體」 고종은 동래부사로 하여금 즉시 서계를 받아들여자는 李最應의 의견에 동의했다.

장도 壬午軍亂전의 청의 권고안이 조선측의 참고사항만 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¹⁷⁷⁾ 일본이 영종도 사건 후 동래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동래부사가 영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유리한 구실을 만들려고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강화도 조약담판시 일본측에서 영종도 전투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조선측에서 몰랐다고 반문한 것은 그 증거이다.⁽¹⁷⁸⁾

8월의 영종도 사건 후 回還使臣과의 문답에서, 고종은 일본이 1875년에 청에 공사관을 개설했으며 朝日關係가 외국신문에 보도되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조선 때문에 관계가 막힌 것처럼 여론이 조성되었고 청에서조차 조선을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정보였다.⁽¹⁷⁹⁾ 고종은 일본과의 관계를 정부 관료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고자 回還使臣들이 가지고 온 조선을 다룬 기사를 대신들이 보고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¹⁸⁰⁾ 이러한 정보들이 강화도에 일본 전권공사단이 왔을 때 조선정부가 일정한 자주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영종도의 전투 후 즉 9월에서 12월까지 침묵을 지켰다. 일본정부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와 청측의 개입

(176) 이러한 인식은 역시 田保橋 潔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田保橋 潔, 1940 위의 책 p. 402 참조.

(177) T. F. Tsiang 〈Sino-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1870~1894〉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April 1933. pp. 60~61.

(178) 《日省錄》卷175, 고종13년(1876) 1월 17일 申 의 馳啓 참조

(179) 《日省錄》卷 172, 고종 12년(1875) 10월 13일 「...近來京報與外各國新報看之臨發時始得見六月條新報則所謂萬國公報中有日本與朝鮮相關事三板語極誣逼甚聞此板一出則非但中國致訝於我國天下萬國以此看作實狀臣等不勝憤惋有未可泯默而退故即地呈文禮部痛斥倭奴之奸狀以明我國之炳義然此與公車文字有異恐不足爲日後可據之實蹟至於倭誣本板...」

(180) 《日省錄》卷 172, 고종 12년(1875) 10월 13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청측에 공사를 보내어 조선에 사신을 파견한다는 정보를 전달하게 했다.⁽¹⁸¹⁾ 청측에 森有禮를 파견하게 되는데 파견시기를 조선특명전권공사 파견과 비슷한 시기에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청의 개입을 약화시켰다.⁽¹⁸²⁾ 사전 정지작업을 한 후 일본은 조선에 특명전권공사 黒田清隆과 부관 井上馨을 파견했다.

조선측은 일본의 제시안에 대해 몇가지 案을 거부할 정도로 자주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일본측과 조선측의 사신파견시 일본의 외무성관원과 조선측의 「秉權大臣」을 같은 등급에 놓으려는 것을 조선측이 「禮曹判書」로 바꾼 것, 일본사절의 서울주재 거부, 대마도와 조선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문서로 요청, 개항장의 변경요청, 최혜국조관거부 등이다.⁽¹⁸³⁾ 그러나 관세문제는 후에 문제로 남게 된다.⁽¹⁸⁴⁾ 또한 해안측량권과 영사재판권은 이후 일본의 조선침략에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 자체는 전적으로 새로운 조약이라기 보다는 구조약을 확대해

(181) 《日本外交文書》第 8 卷 문서번호 60 〈江華島事件ヲ清國ニ邇達スルニ當リテハ清國ト朝鮮國トノ關係ニ鑑ミ今後一層慎重ヲ期スル要旨アル訓令ノ件〉 명치 8 年(1875) 11월 15일, 문서번호 61 〈特命全權辦理大臣ヲ朝鮮國ニ派遣スル趣旨ヲ清國政府ニ報知スヘキ旨指令ノ件〉 명치 8년(1875) 11월 20일 참조

(182) 일본은 조선과의 수교 전 러시아와도 樺太(사할린)과 千島(쿠릴열도)를 교환했다. 박일근편, 1983 《Anglo-American Diplomatic Relating to Korea》 British Diplomatic Archives 중 No. 4 〈Sir H. Parkes to the Earl of Derby-Received February 12, 1876 기밀문서〉 pp. 17~18 참조

(183) 尹素英, 1995 《轉換期の朝鮮の對外認識と對外政策—朴珪壽を中心に—》 お茶の水女子大學 人間文化研究科 박사논문 pp. 244~258 및 金容九, 1997《(전정판)세계의교사》 서울대 출판부 pp. 260~273 참조.

(184) 관세문제를 인식한 조선정부는 1878년에 조선상인에게 收稅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海關을 설치하고 收稅率을 정하려고 일본과 교섭을 했다. 그 과정은 金敬泰, 1993 「개항 직후의 관세권 회복문제」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서 대마도가 아닌 일본정부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이다. 강화도조약은 조선정부가 당시의 국제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유지(조선측 의도)와 근대국제법적인 질서수립을 통한 세력확장 정책(일본측 의도)의 교묘한 결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⁸⁵⁾

고종은 강화도 조약 후 1876년(고종 13년) 윤 5월에 사신을 청에 파견했다. 9월에 이들과의 문답에서 고종은 새로운 통상관계, 즉 개항장 무역의 확대에 대해서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표 3〉참조)⁽¹⁸⁶⁾ 그리하여 1876년(고종 13년) 10월 27일에 청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청과 洋夷가 최근에 맺었던 조약을 상세히 탐문해 오라고 했다.⁽¹⁸⁷⁾ 당시 청은 영국과 기타 유럽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각국에 외교관을 주차시키고 있었다. 이로 보건대 고종과 조선정부의 관료는 강화도 조약 후 새로운 외교체제에 대응하려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맺 음 말

이상에서 고종 집권초기부터 강화도조약 직전까지 고종의 대외인식

(185) 당시 동아시아에서의 국제법 질서에 대해서는 金容九, 1997 《세계관 총들의 국제정치학》 나남출판 참조

(186) 《日省錄》卷 184, 고종 13년(1876) 9월 24일 「...予曰七處停泊五口通商何謂耶 種默曰停泊即洋船隨處到泊之謂而五口通商即各海口交通貿易之事此等說不出於文蹟則其五口七處不能詳知何省何地然此亦約條中云云矣(中略) 予曰以若大國之威令不能抵當故洋人尤爲熾盛也 敦源曰大國人皆爲小心做去云矣 予曰大國人器減却而然乎才不足而然乎 敦源曰人器則未知如何而其才則似不及矣...」

(187) 《日省錄》卷 185, 고종 13년(1876) 10월 27일

을 세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고종의 대외인식 형성의 초기인 1864~1871년은 주로 大院君이 집권한 시기로서 대외정책은 외국과의 '통상거부정책'이 주가 되었던 시기였다. 고종은 청에서 돌아온 사신들과 접견하면서 청의 사정을 어렵פות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조선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었기에 강경한 대외배척정책이 주가 되었고 고종도 이 정책을 무리없이 받아들였다.

1871년에서 1873년간은 고종의 정권장악이 구체화된 시기로서 고종은 20세의 청년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하고 있었다. 이 시기 고종의 대외인식을 형성한 것은 주로 청을 다녀 온 사신을 통해서였다. 당시 일본과는 동래부에서 외교상 고착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명치유신 후 조선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와 거기에 따른 조선 정부의 강경한 척왜정책의 대립 때문이었다. 특히 1872년의 동래의 '倭館欄出'을 통해 결정적으로 관계가 경색되었다. 고종은 일본에 대해 관심을 증대시키기 시작했다.

이 시기 고종의 친정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청내부의 권력변화와 성인이 된 국왕자신이었다. 공친왕의 섭정에서 동치제로의 친정변화는 고종의 실질적인 '친정'체제 구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일본과 청의 수호조규의 체결사실에 접한 고종은 중화주의적 외교의 동요에 대해 실감했다. 게다가 친정직전 고종은 進講을 통해 왕권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키워오고 있었다.

1873년 11월에 최익현의 상소를 기점으로 고종은 실질적인 '친정'체제를 확립했다. 기존의 삼정승을 교체하여 이유원, 박규수를 등용했다. 나중에 이최응 등이 합류하면서 고종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섰다. 이는 민비척족 세력에 의해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물론 이 글에서는 왕비와 고종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

다. 그러나 고종의 주도하에 친정과 뒤이어 외교정책이 바뀌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본과의 교섭에서 書契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정치체제를 인정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조선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 ‘違格文字’ 문제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일본내부의 사용을 문제 삼을 것까지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고종은 이 문제를 대했다. 그리하여 몇 차례의 관직교체를 하면서도, 동래부에서 연향을 배풀고 그 자리에서 서계를 받아 볼 것을 고종은 지시했다.

일본측이 새로운 외교체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면서 기존의 宴饗절차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서계를 納入하겠다고 버텨서 결국 동래부 회담은 결렬되었다. 얼마 후 강화도 영종도에서 이양선이 출몰하여 조선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조선은 이 배가 어느나라 소속인지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러나 고종은 회환사신을 통해 청에서 발행된 신문기사들을 읽고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분석한 후 서계를 즉각 수납하자는 당시 영의정 이최응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게 되었다. 이것은 강화도 조약 전이었다. 사전의 준비를 통해 고종은 일본측이 강화도에 왔을 때 많은 반대를 무릎쓰고 일본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신헌과 윤자승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고 조약문을 일일이 검토했던 것은 고종이었다. 그러나 조약내용의 의미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 글은 고종의 청을 통한 대일정책의 선회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친정 후 일본과의 구체적인 교섭과정에 대한 분석이 약하다. 또한 고종 친정 후 의정부로 권력이 옮겨지면서 의정부에서 대일정책이 많이 토론되었는데 의정부 소속의 관료에 대한 검토가 소수에 국한되었다. 또한 강화도 조약 체결과정과 이후 조약과의 연관성과 차별성에 관한 문제는 후일의 과제로 돌린다.